

경남간호

경상남도간호사회지 통권25호

권두시 | 해돋이 | 김연희 경남간호 초대갤러리 | 서양화 | 성삼만 경남간호인 | 강's Senior 연구소 강경혜 · eh 여성 Health Care 연구소 김은희 간호칼럼 | 부끄럽지 않게 살기 | 박형숙 2019 간호계 동향 | 싱가포르 ICN총회 | 심혜영 · 간호정책 선편식 | 강호정 조희운 문화체험수기 | 한뜻 페스티벌 | 전경옥 박진경 윤선혜 정윤미 김고은 정주미 · 나비특공대 | 김은영 회원작품 맛보기 | 거창군간호사회 · 이숙련 · 김현정 · 신지선 여행기 | 이인희 현장의 소리 | 박정민 · 정나래 박현정 제28회 학술발표회 논문초록 경남간호 핫이슈 | 2019년도 '간호정책 아카데미&간호교육 질 향상 세미나' 개최 경남간호사회 이모저모



경상남도간호사회
Gyeongsangnam-do Nurses Association

해돋이

날마다 황금 왕 알을 낳아
하늘로 바치네

저 분의 엉덩이는
얼마나 뜨겁기에
온 바다를 녹여 선혈로 적시나

신선한 만물들 기립박수를 쳐

우주 삼라만상에
바치는 거룩한 봉헌에
눈을 번쩍 뜨는 만상萬象

경남간호

경상남도간호사회지 통권25호



김연희 1991년 대한간호협회 신문 간호문학상 수상 | 2001년 《문학세계》 시 신인상, 2004년 《경남문학》 수필 신인상 | 2006년 마산예술인상 | 2012-2017년 붓꽃문학회장, 마산교구가톨릭문인회장 역임 | 한국문인협회, 경남문협, 경남시인협회, 마산문협, 붓꽃문학회, 가톨릭문인회원으로 활동 | 마산수정보건진료소장, 아름다운요양원 원장 역임 | 현. 기장군 보건소 근무



■표지이야기
제17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경남대회

경남간호

경상남도간호사회지 통권25호

발행처/경남간호사회
발행인/박형숙
발행일/2019년 12월 31일
편집장/이종임
편집위원/김은희, 박옥명, 박춘희, 이숙희, 황진희, 김영란(사진)
주소/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403(오피스프라자)
경남간호 문의/055-262-6006
홈페이지/http://www.gsndnurse.or.kr/
비매품

제자:순원 윤영미(서예가)
• 대한민국전통미술대전 초대작가
• 대한민국 전연대상전 초대전(서울 백악미술관) 외 다수 전시
• 현) 순원서예원장

권두시 | 해돋이 | 김연희

- 4 권두언 | 박형숙 |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
- 6 격려사 | 박종선 | 증경회장

- 8 경남간호 초대갤러리 | 서양화 | 성삼만

| 경남간호인 |

- 10 제2의 인생 2모작, 백조의 비상을 꿈꾸며
강's Senior 연구소를 운영하는 강경혜



- 13 eh 여성 Health Care 연구소
김은희 대표를 만나다



간호칼럼

- 16 부끄럽지 않게 살기 | 박형숙

2019 간호계 동향

- 18 2019 싱가포르 ICN총회를 다녀와서 | 심혜영
- 20 2019 간호정책 선포식 | 강호정, 조희윤

문화체험수기

- 24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간호사 문화축제 '한뫼 페스티벌'
| 전경옥, 박진경, 윤선훈, 정윤미, 김고은, 정주미
- 29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큰 행복을 전하는 선물이 되기를 | 김은영

회원작품 맛보기

- 32 킬트,한지공예 | 거창군간호사회
- 34 시 | 어머니의 난朧 | 이숙련
- 35 수필 | Happy, Happy Birthday!! | 김현정
- 36 수필 | 간호윤리 상황극을 마친 후 | 신지선

여행기

- 38 아픔과 서러움이 잔존해 있는 도시 '목포' | 이인희

현장의 소리

- 42 늦깎이 신규간호사 비상하다 | 박정민
- 44 간호사 Cheer Up을 다녀온 후 | 정나래, 박현정

- 46 제28회 학술발표회 논문초록

경남간호 '핫이슈'

- 54 2019년도 '간호정책 아카데미 & 간호교육 질 향상 세미나' 개최

경남간호사회 이모저모

- 58 2019년 분회 주요소식
- 63 2019년 분회 주요소식 | 창립순으로
창원시간호사회 · 진주시간호사회 · 거제시간호사회 · 통영시간호사회 · 창녕군간호사회
하동군간호사회 · 고성군간호사회 · 김해시간호사회 · 양산시간호사회 · 사천시간호사회
거창군간호사회 · 남해군간호사회 · 합천군간호사회 · 밀양시간호사회 · 함안군간호사회

- 72 편집자 레터

불덩이 같은 뜨거운 가슴을 부여잡고



박형숙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

존경하는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 365일간은 어느 해보다 바쁘게 지나왔습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100만 서명 운동의 목표수 달성부터 간호정책 관련 국회 토론회, 통영과 창원외 보궐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자들과의 간호정책 간담회와 설명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전국간호연대’ 개악법 철폐를 위한 보건복지부 앞 총 규탄대회, 무엇보다 중요하고도 장대했던 간호역사 100년 만의 큰 행사 — 10월 30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5만여 명의 전국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염원을 담은 간호정책 선포식, 이 가운데 우리 경남의 회원들이 미래의 간호사인 학생들까지 합심하여 꼭두새벽부터 74대의 버스에 몸을 싣고 3,000여 명이 참여한 바는 실로 놀라운 열기 — 가슴으로부터 용솨아 올라오는 뜨거운 불덩이 같은 열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6월, 6박 8일간의 싱가포르 ICN 대회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한국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하여 전 국무총리 김황식 님의 연설과 함께 참가한 4,000여 명의 세계간호사들로부터 3,000명의 사인을 받아내는 쾌거가 있었고, 각국의 민속 의상들의 화려함이 펼쳐졌으나 한복 입은 100여 명의 한국 간호사의 아름다움은 가는 곳마다 찬사를 자아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는 하루도 쉴 틈 없이 달려온 한 해를 잘 마무리 하고, 새해는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과 세계간호사의 해인 2020년을 맞아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한국 간호 117년의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긋게 될 간호법 제정을 앞두고 참으로 힘차게 달려왔으나 우리는 여전히 간호법 제정이라는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서 항해 중입니다. 그러나 2020 새해 새출

발과 함께 이제 그 끝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연고로 지난 11월 10일부터 시작된 국회 정문 앞에서의 1인 시위는 오는 3월 30일까지 전국의 17개 지부의 회원들이 릴레이로 지속될 것이며, 저 또한 처장과 함께한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 27일의 1인 시위는 저로 하여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1903년 한국 최초의 간호교육 기관이 설립된 이래 일제 강점기를 지나 오늘날까지 모든 역사적인 현장에 한국 간호사들의 발자취가 담겨 있지만 제도적인 장치의 부재로 인해 온전한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 예로 1951년 제정되었으나 의사법에 지나지 않는 국민의료법은 그 이후 70년의 장구한 세월이 흘렀지만 국민소득 3만 불을 상회하는 가운데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 못하고 있으며, 간호사와 의사를 상하의 수직적인 업무관계로만 규정하고 있어 현대의 다양화, 전문화, 협력화된 보건의료 체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간호 여건의 현실 속에 매년 2만여 명의 간호사가 배출되지만 각 간호현장에서는 여전히 간호사 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정작 간호가 필요한 곳에 그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세계 간호사의 해를 맞아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간호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 환자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하여 봉직함으로써 높은 사직률과 이직률을 낮추고 마땅히 보장받아야 될 권리를 누리며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환자들도 간호사로부터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이 항해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 도약의 해에 이르렀습니다. 간호법 제정과 더불어 보건의료 개혁을 통해 이 나라와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더 열심히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간호사의 참정신은 선비정신으로부터



박 종 선
제17·18대 중경회장

조선간호부협회가 1923년 5월 12일 창립, 1946년 전국중앙회가 개편됨에 따라 1945년 경상남도 간호지부, 1946년 경상북도·서울·경기도 지부가 창설되었으며, 1948년 대한간호협회(17개 지부, 10개 산하단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전문간호사 제도가 2000년 1월 의료법에 분야별 전문간호사(4개)로 명칭을 개정하여 현재 전문간호사 분야별(13개) 전문간호사가 배출되며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대형 전문직 단체로 책무를 다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현장은 간호관리자, 일선 간호사 간의 인식의 온도차를 느끼게 한다. 최근 들어 졸업 간호사는 많이 배출되지만, 현장은 간호인력 부족을 호소한다. 서로 협력하여 좋은 일터로 거듭나는 것은 현장의 건강한 간호전문직 문화패턴을 종전의 생계터전에서 생활터전으로 조직문화가 형성될 때 가능하다. 이러한 문화의 기틀 속에서 간호 전문조직인의 보람과 긍지로 성장해 갈 것이다.

최근의 급변하는 사회문화의 변화 속에 우리 간호조직 역시 종전의 '보수지배 문화패턴'에서 '진취지배 문화패턴'으로 탈바꿈하고, 간호 구성원들의 평등한 기회보장 문화가 정착된다면 새롭고, 건전한 간호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다.

따라서 간호조직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간호관리자, 경력간호사, 신규간호사 간의 일치된 눈높이가 중요하다. 지금은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지닌 구성원 개개인을 존중하고 독특한 능력들을 최대한 발휘하여 다양한 측면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도록 상호 배려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간호조직은 구태의 모습을 유지하며 특유한 절대적 권위 구조에 매몰되어 '태움'이란 혐오 단어까지 등장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고 걱정스럽게 한다.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는 현 세대에 대해서는 간호조직 현장과 교육기관 모두가 상호 노력으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이다.

이러한 오래되고 고착화된 문제해결을 통해 신규간호사들의 조직적응을 돕기 위한 간협 차원의 노력으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체계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하여 현장에서 활용

하고 있다.

간호사는 간호지식, 간호기술 및 간호정신의 균형적 발전과 함께 자율성 존중, 악행 금지, 선행 및 정의 등 도덕적인 원칙을 현장에 적용하는 중요한 전문직군이다. 이러한 전문간호직의 문화는 간호사가 있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문화나 장소에 구애됨 없이, 일관성 있게 현장에서 적용되며, 전문직 간호사회에 행동지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의료인들은 다른 조직과 달리 기본적인 소양으로서 배려, 나눔, 섬김 및 타인의 고통 등을 같이 하려는 희생, 봉사, 박애정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간호조직의 지고지순의 인본사상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웃사랑 정신은 예부터 현재까지 우리들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간호조직 문화의 전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등 강한 공동체 연대의식이 높은 사회일수록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이며, 공동체 연대가 무너진 사회는 아주 낮은 신뢰사회로 규정한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거래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으며, 비용지출이 줄어들수록 사회적 효용성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는 잊혀져가는 우리들의 전통문화인 선비정신을 새롭게 되살릴 때 가능할 것이다.

조선왕조 500년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는 우리 고유의 선비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경제대국의 성장에 기초를 다진 새마을 운동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믿음체계도 바로 선비정신이다. 부패사회의 원인은 한마디로 이러한 선비정신의 실종에 의한 것이며, 사회적인 자본이 축적되지 못한 결과이다.

즉 개인적인 덕목인 인(측은지심), 의(수오지심), 예(사양지심), 지(시비지심)와 함께 타인과의 관계덕목인 효(사랑, 공경), 충(친애, 책임), 경(존중, 배려), 신(소통, 신뢰) 등을 통해 개인적인 성숙과 사회적인 인격을 체득하는 선비정신을 계승하였기에 가능했다.

특히 새마을운동의 정신적인 모태는 선비정신이었고 이는 곧 국민정신이었기에 국민적인 통합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잘 살기위한 정신', '같이 잘 살아보자'는 대국적인 정신을 실천, 행동으로 이끌어 낸 범 국민 교육운동이라 할 것이다.

선비의 행동은 '술선수범' 곧 신뢰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며, 선비의 목표는 '최고'가 아닌 '최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서로를 감싸 안아주는 최선의 행동은 최종 목표인 '공동선'을 창조하는 우리 간호사회의 '참정신'이자, '참지식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조직전체 구성원들의 온도차를 최소화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서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상호 믿음 속에서 항상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순발력 있는 능력이 곧 간호전문 지식인들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자산이자 저력인 것이다. 이 전통적인 저력을 바탕으로 간호현장이 신바람 나는 간호의 생활터전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인간 냄새나는 우리의 생활터전으로 거듭나기를 우리 모두 다 함께 합심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귀항 /45.5cm×33.4cm

●작가노트

나는 고향 통영 바다가 좋다.
 특히 계절마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물색이 좋다.
 그 위에서 나타나고 만들어지는 풍경들을 화폭에 담고 싶어 그림 공부를 시작하였다.
 잘 그리는 것보다 자연 그대로 보이는 통영 바다의 색깔을 표현하고 싶다.
 통영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어린아이의 눈으로...



생각이 난다 /53.0cm×40.9cm



만지도 /53.0cm×40.9cm



성삼만 화가 | 2012년 16회 통영 화우회 출품 | 2013년 제20회 한국미술국제공모대전 입선 | 2014년 제32회 대한민국 신미술대전 특선 | 2015년 제33회 대한민국 신미술대전 입선 | 2016년 제34회 신미술대전 특선 | 현, 통영 화우회 회원으로 활동.

간호의 깊이를 배우기 시작하며
 눈에 보이지 않았던 많은 부분들이 마음으로 와닿아
 다시금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나의 용기를 부어주고 있으며,
 ‘자신이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는
 나의 인생 주제를 가슴에 안고
 남아 있는 생애도 백조가 비상할 때
 섬세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것처럼 돌아보며
 새로운 삶의 아름다움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한다.



| 경남간호인 |

제2의 인생 2모작, 백조의 비상을 꿈꾸며 강's Senior 연구소를 운영하는 강경혜

●●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중학교 시절 담임선생님께서 철없이 깔깔대는 우리들에게 진지한 표정과 음성으로 하신 말씀이 내 인생에 큰 울림으로 다가와 평생 가슴속에 나의 인생 길잡이가 되었다.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해본다. ‘나는 잘하고 있는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한없는 의문 속에서도 주위를 둘러보며 필요로 하는 일을 찾는 것이 습관처럼 된 것은 선생님의 말씀과 중학교 시절부터 적십자와 함께 했던 것이기 때문이라 여긴다.
 젊은 날에는 우리 모두 미래의 자신 모습을 외면하고 직장이라는 현실 앞에서 허덕대며 사회에서 물러날 때를 생각하지 않는다. 나 역시 퇴직이라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현실에 몰두하며 지낸 것 같

았다.
 한참을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자신의 미래가 보이고 고민을 하게 되었으며 조금씩 주변에 눈이 뜨이기 시작했다. 35년간 보건진료소 근무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퇴직하면서 지역에 <강's Senior 연구소>를 개설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하는 노인들의 문제점을 연구하기 위해 젊은 강사들을 배출하여 경로당 사업과 노인 관련 일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현재 지역사회 노인들로 구성된 ‘신봉 꽃님밴드’를 만들어 노인들에게 우쿨렐레 수업 봉사를 하고 있으며 음악을 통하여 노인들의 성취도와 서로 간의 유대감을 통하여 만족도가 높은 삶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
 40여 년의 적십자 활동은 나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고 퇴직 후에는 나눔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모티브가 되었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재난 심리상담 활동가로서 포항지진 피해자와의 상담과 밀양 화재사건 피해



라오스 해외봉사활동

자들의 상담 등은 아직도 가슴에 아픔이 전해져오는 사건들이며, 대구 지하철 화재 유가족이 주도하는 추모식에 다녀오면서는 화재의 심각성과 안전을 다시 한번 더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노인회 웰다잉 강사로서 경남지역 노인대학, 복지관 등에 출강하며 언젠가는 모두가 가야 할 그 길, 죽음의 인식과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대해 알려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자식이나 가족을 위해 애쓰던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삶의 마무리를 소개해 줄 때 그들은 참으로 진지한 자세로 들어주며 공감하기도 하였다.

적십자 라오스 해외 봉사활동 시엔 간호사로서



밀양화재 심리지지봉사



적십자 노인건강 생활체조대회 활동



적십자 노인건강 체조강사교육

대한노인회 웰다잉 강사로서 경남지역 노인대학, 복지관 등에 출강하며 언젠가는 모두가 가야 할 그 길, 죽음의 인식과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대해 알려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자식이나 가족을 위해 애쓰던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될 삶의 마무리를 소개해 줄 때 그들은 참으로 진지한 자세로 들어주며 공감하기도 하였다.



지역 경로당 치매예방을 위한 어르신 음악봉사



대한노인회 웰다잉 교육

보건교육, 성교육, 위생에 대한 교육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역할을 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나아가 전문적인 지식이 절실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간호는 '전문직이며, 소명(calling)이고 인류를 구하기 위한 신을 향한 봉사'라고 나이팅게일이 주장하였던 것처럼 간호사는 자기 삶의 결과를 제어하며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참 사람임을 살아가며 깨달았다.

현직에서 몰려나 간호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간호를 행하는 간호사의 행위들이 몸에 닿기 시작했으며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현장이라는 걸 느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좀 더 세심하게 살필 걸...' 하는 후회감이 들기도 했다.

보건진료소 근무할 당시에는 열악한 환경과 시간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지 못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며 나의 인생에는 새로운 시작을 올리는 타임

벨이 울려졌다.

주변에서는 지금 공부해서 뭐 하려고 하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질책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겐 지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시작이 반이다' 흔하디흔한 이 말 한마디를 우리는 예사로 내뱉지만 뭔가를 시작해 보면 확연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말이기도 하다.

간호의 깊이를 배우기 시작하며 눈에 보이지 않았던 많은 부분들이 마음으로 와닿아 다시금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나의 용기를 부여주고 있으며, '자신이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는 나의 인생 주제를 가슴에 안고 남아 있는 생애도 백조가 비상할 때 섬세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것처럼 돌아보며 새로운 삶의 아름다움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한다.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수레바퀴인 노년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 제2의 인생 2모작을 위해, 오늘도 나는 두꺼운 책을 쉼 없이

eh 여성 Health Care 연구소 김은희 대표를 만나다

'간호', '건강증진', '운동', '항노화', '항노화 물질 연구' 관련 이론과 실험 등을 통합한 헬스케어연구(의학 및 약학 R&D)를 하게 되는 의·과학 연구 활용 공간으로서의 연구소



김은희 'eh 여성 Health Care 연구소' 대표. 그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임상간호사로, 정부산하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그리고 교수로서 교수직을 역임하다 최근 중소벤처연구소 대표로 변신한 대한간호협회 평생회원이다.

김은희 대표는 2000년부터 진주의 경상대학교 연구원, 연구교수를 거쳐 2003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한국국제대학교 교수로 근무해왔다. 임용 당시 한국국제대학교에는 보건의료계열 학과가 없었기에 보건계열 학과의 신설을 재단에 건의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오가며 물리치료학과와 간호학과를 개설하였다. 물리치료학과 신설 후 초대학과장으로 5년간 근무하며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100% 합격, 100% 취업의 신화를 다졌으며, 이후 2009년 간호학과 개설을 준비해 2010년부터 신설 간호학과 초대학과장으로, 10년간 간호학과에서 기초간호학 전공 교수로 근무해오다 2019년 7월 1일 간호학과를 떠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지도자 1급 자격증(운동처방 분야)을 취득한 '1호 간호사'
 '건강한 국민이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책자 저술, 한국체육진흥공단 사보 등에
 운동처방 칼럼 게재, 지역 경남일보 외에도 수년간 격주로 '건강과 운동' 칼럼 등을 게재하며
 지역사회에서 생활체육 운동 활성화에도 기여



U-Penn병원 운동처방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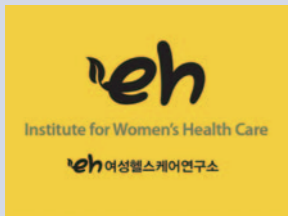


John's Hopkins병원에서 교수님과



제자들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김 대표는 삶의 목표로 '인생의 1/3 시간은 부모님 그늘에서 배우며 공부하고, 그 후 1/3 시간은 가정, 연구소, 학교에서 배우며 가르치며, 그 이후 1/3 시간은 그간 배우고 가르친 것들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자신을 위시한 중년여성들의 건강증진 및 항노화를 위해 지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자'는 생각을 해 온 터라, 김은희 대표의 영문 이니셜을 딴 'eh 여성 Health Care 연구소'를 개설하고 2019년 7월 10일부터 연구소 업무를 하게 되었다.



'eh 여성 Health Care 연구소'는 경남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내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윙스타워)에 경상남도의 입주 승인을 받아 입주, 진주시의 일부 지원을 받으며 그간 배우고 주로 해왔던 일들인 '간호', '건강증진', '운동', '항노화', '항노화 물질 연구' 관련 이론과 실험 등을 통합한 헬스케어연구(의학 및 약학 R&D)를 하는 의·과학 연구 연구소로, 여성 항노화 Health Care 연구, 여성 Health Care Platform 구축을 통한 System 개발, Health Care System Forum 구축, Health Care와 의학 및 천연생리활성물질 연구 및 산업화 Anchor 구축, 지역사회 보건·의·과학 기관들과의 Health Care System(교육·연구) 교류 운용 등의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연구 업무를 새로이 시작하였다.

김 대표는 1983년 경북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경북대학교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다 졸업 경북의대 해부학 교실에서 근무하며 간호학과와 해부학 강의를 해오다 1991년 해부학 관련 실험논문으로, 모교인 경북대 대학원 간호학과에서 배출한 박사 1호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학위논문 내용이 근육분석과 관련한 기초 연구자를 몰색하던 태릉선수촌에 위치한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쪽에 알려지면서 국내 최초 유일한 여성·간호학전공 연구원으로 발탁되어 처음에는 '국가대표선수 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구를 했었고, '93년 스포츠의학실이 개설되면서 연구실장을 맡아 운영하면서, 문화체육부의 국책과제였던 '국민체력센터' 개설의 연구·준비를 주도하며 '건강검진,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내 최초 건강진단·운동처방 업무를 연구하는 연구팀의 일원으로 활동하였고, 한국체육진흥공단 부설 '국민체력센터'가 개설될 즈음엔 해외교환연구원으로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의과대학 병원과 John's Hopkins 병원 등의 연수과정을 거쳐, 현재 서울 올림픽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국민체력센터'의 책임연구원으로 수년간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간호사로서 의료인과 운동과학자를 결부시키는 중요한 중간 역할자 역할을 맡아 보람을 느꼈다'고 하였다.

문화체육부의 생활체육지도자 1급 자격증(운동처방 분야)을 취득한 '1호 간호사'이기도 한 김 대표는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당시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 중재의 한 방법으로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간호사는 단순한 운동의 권유보다는 운동·건강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학문 전공자에 비해 운동처방에 있어서도 유리한 조건을 가진다'며 간호사들의 역할을 많이 강조하였다. 간호학·체육과학 연구를 통해 근육위축을 방지하는 등 간호 실무에 도움이 되는 많은 연구결과 발표 및 '비과학적인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손상시킨다'는 운동의 중요성을 피력해왔으며, '건강한 국민이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책자 저술을 위시해, 한국체육진흥공단 사보 등에 수년간 운동처방 칼럼 게재, 지역 경남일보 외에도 수년간 격주로 '건강과 운동' 칼럼 등을 게재하며 지역사회에서 생활체육 운동 활성화에도 기여해왔다.

현재, 김은희 대표는 경남간호사회 홍보·편집위원, 대한민간호학회 정회원, 한국기초간호학회 대외협력이사, 대한간호학회 정회원, 경남보건협회 감사, 경남과학기술인총연합회 이사, 동아시아여성과학기술인회 이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한적십자사 상임위원, 진주시 양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 한국부인회 진주시회 고문, 미국의학회 National Disaster Life Support Instructor 등의 연구·봉사 활동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 <정리/ 이숙희 편집위원>



진주시 양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부끄럽지 않게 살기

간호사들은 일제강점기에 뜨거운 민족의식과 기개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군대 해산 당시 부상병을 간호하는 한편으로 군자금 모집, 사회 계몽운동, 첩보활동, 적십자 활동 및 비밀연락 등 다양한 활동을 러시아 연해주, 만주, 용정, 중국 상해 등 미국에서도 항일운동과 간호사 양성 교육에 앞장 서 왔다. 이러한 선배간호사의 고귀한 열은 41만5,000여 명의 간호사 회원 한 명 한 명의 가슴속에 살아 있을 것이다.



박형숙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

1919년 3·1운동 이후 봉오동 일대에서 잔인하고 신식 무기를 지닌 일본군을 죽음의 골짜기로 유인하여 계곡과 능선을 귀신같이 넘나들며 역사에 기록된 독립군의 첫 승리에 대한 역사적 소재를 감독의 상상력이 보태어져서 만들어진 액션 영화 <봉오동 전투>가 상영되자마자 떡덕하고 마음이 몽클해지면서 눈물마저 머금지 않을 수 없었다. 주인공 이장하(유준열)의 누이 유인처럼 우리 모두 부끄럽게 살지 않기를 다짐하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 가난한 시절에 백성이 독립군으로 변신하여 무장 항쟁을 벌인, 다소 과장이 없진 않았으나 유쾌한 영화 봉오동 전투를 광복절 날 딸과 함께 의미 있게 관람하였다.

8월 15일 전국의 간호사회 17개 지부는 일제히 그 지역의 일간지에 <독립운동가 34인의 간호사>를 전면 광고하였다. 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윤종필과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독립운동가 간호사를 만나다의 세미나 및 특별 전시회의 소산물인 것이다. 34인 가운데 17인은 겨우 이름과 어느 단체 소속으로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정도밖에 알려져 있지 않은 채 작자미상으로 사진도 없다. 그런데 창원시의 이종화 의원이 이 광고를 접한 후 이애시에 관한 정보와 귀한 자료를 갖고 있다는 반가운 전화가 걸려 왔다. 이애시는 결혼을 하지 않아 자녀가 없으나 그를 고모라고 부르는 이화여대 이효재 전 교수 또한 유명한 여성운동가이고, 그 후손들이 마산 진해 등지에서 병원과 사회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 시절 초·중·고교를 거쳐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역사가요 독립운동가인 단재 신채호 선생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가 모를 것인가? 그러나 그분의 부인이 군자금을 모집하고 첩보 활동을 하고 독립군을 적극적으로 치료한 박자혜 독립운동가 간호사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진주를 기반으로 집집마다 말을 타고 방문하여 어린이 예방접종과 모자 보건사업을 펼친 독립운동가 간호사 한신광, 그리고 지난 2월 27일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노순경 독립운동가의 외손자를 비롯한 지금은 강원도에서 의료사업을 하고 있는 후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노백린 장군의 딸로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우리들 일반인에게 알려진 여성 독립운동가는 유관순 열사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지만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고자 목숨을 건 독립운동은 그 당시로써는 배운 지식인 간호사들의 사회적인 책무이었을 것이다. 옥중에서 일본 순사의 온갖 고문과 고초에도 조선이 독립될 때까지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겠다고 말한 14살의 어린 간호사는 모진 고문을 못 견디고 끝내 옥사하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이 그때 당대의 경성 지방법원 판결문과 수형기록 카드에 잘 나타나 있다. 현재는 독립운동가 간호사가 34인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더 발굴될 전망이다.

74년 만에 맞이하는 올해 광복절은 우리 간호사들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1923년 조선간호부를 결성한 이래 간호교육 100주년을 3여 년 남겨두고 있다. 2008년부터 <간호역사 뿌리 찾기 사업>을 시작하여 한국 간호역사 자료집 제1권과 제2권에 한국 근대 간호역사 화보집을 발간했고, 간호사의 항일 구국운동을 2012년에 발간하여 독립운동가 간호사 26명이 수록되었다.

1919년 호기심 많은 영국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1887년~1956년)가 극동의 작은 나라 조선을 방문하였다. 일제 식민지 지배에서 신음하는 가난한 나라 조선 사람들의 풍속과 풍습, 빼어난 경관에 빠져 1920년대에서 40년대의 서민들, 시장통, 양반집과 가족들, 결혼풍습, 과부의 처연한 모습, 사찰의 흰 부처 그림 및 아이들 연날리기 등등의 생활 모습을 담은 그림을 마음으로 생생하게 그렸다. 키스 여동생 엘리자베스 스콧 또한 1919년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간 머무르면서 보고들은 바, 특히 한국 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조선의 여성들은 뼈대가 작고 얼굴 표정은 부드럽다. 인내와 순종이 제2의 천성이 된 듯하다. 그러나 온순하기만 한 조선 여성에게도 의외로 완고한 구석이 있다. 이들에게 새로운 문물을 강요하거나 오랫동안 쌓아온 그들의 생각이나 생활신조를 바꾸려고 한다면 차라리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모두 허물어 옮기는 것이 더 쉬울지 모른다. 그러므로 조선의 여성들 마음을 사로잡는 최선의 방법은 오직 조선의 풍습을 존경하며 끈기와 친절로 대하는 것일 뿐이다.

하물며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일제강점기에 뜨거운 민족의식과 기개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군대 해산 당시 부상병을 간호하는 한편으로 군자금 모집, 사회 계몽운동, 첩보활동, 적십자 활동 및 비밀연락 등 다양한 활동을 러시아 연해주, 만주, 용정, 중국 상해 등 미국에서도 항일운동과 간호사 양성 교육에 앞장 서 왔다.

이러한 선배간호사의 고귀한 열은 41만5,000여 명의 간호사 회원 한 명 한 명의 가슴속에 살아 있을 것이다. 오로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어떠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일단 환자부터 살리고 보아야 한다는 간호신념으로 전국 경향 각지에서 병원, 보건소, 학교, 농촌, 지역사회, 보건 진료소 및 산업체 등에서 땀방울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간호전선에서 땀 흘리고 있다.

<2019. 8. 29. 경남신문 게재된 글>

2019 싱가포르 ICN총회를 다녀와서

심혜영 / 김해보훈요양원 간호과장



간호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간호 현장에서 환자와 동행한 지 25년 세월을 보냈다. 간호사 생활 중 2019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ICN총회 참석이 내 인생에 가장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니었다 생각되며 책, 매체 등에서 듣던 ICN, WHO라는 기구를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고 목격한 저로서는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할 정도로 가슴이 벅찼던 기억이 난다.

ICN회원국 134개의 나라에서 간호사 5,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자리에 모여 각 나라의 전통의상을 입고 본국의 아름다움을 뽐낼 때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태극문양 부채를 들고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며 지나가기만 해도 한류 아이돌 스타가 될 정도로 모든 나라에서 관심과 찬사를 받았다.

대한간호협회의 위상이 세계에서 얼마나 높은지 ICN을 통해 알게 되었고 각 나라의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갈 때 “South Korea”가 호명되면서 한복을 멋있게 차려입은 대한민국 간호사 대표분들이 인사를 하니 세계 각국의 간호사들이 “beautiful” 연신 외치면서 카메라 세례를 받은 기억이 선명하다. 얼굴색과 모습은 달라도 간호사라는 한 단어로 모두를 하나 되게 하였고 서로 눈빛으로도 충분히 교감되는 순간이었다. 우리나라 한복이 이렇게 고울 수가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부분이었고 자랑스러웠다.

대한간호협회의 위상이 세계에서 얼마나 높은지 각 나라의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갈 때 “South Korea” 호명되면서 한복을 멋있게 차려입은 대한민국 간호사 대표분들이 인사를 하니 세계 각국의 간호사들이 “beautiful” 연신 외치면서 카메라 세례를 받은 기억이 선명하다. 얼굴색과 모습은 달라도 간호사라는 한 단어로 모두를 하나 되게 하였고 서로 눈빛으로도 충분히 교감 되는 순간이었다.



대한간호협회 홍보부스에서 -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홍보 중이다. (필자는 왼쪽 사진 첫번째)

이번 총회 주제는 ‘Beyond Healthcare to health’로 미래의 간호는 질병을 치료하는데 중점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질병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간호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맞아 2020년을 ‘세계 간호사의 해’로 지정하여 대한간호협회에서 2020년 노벨평화상을 간호사가 받는 의미 있는 해를 맞이하기 위해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후보로 추천하여 6월 28일부터 7월 2일 동안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세계 각국의 간호사들에게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저는 영어가 짧아 미소로 대응을 했으며 몸짓 발짓으로 서명운동에 동참을 하였고 “Okey” 하면서 한 분 한 분 서명을 받을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경남간호사회 박형숙 회장님의 활약은 독보적이었고 영어 실력도 대단하여 외국인들에게 두 사람의 희생 봉사 정신을 일일이 설명을 해가며 서명운동에 열을 올리시는 것 보고 존경심이 우러나왔다.

소록도의 한센인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외국인 두 간호사의 삶을 통해 사랑과 배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으며 노벨평화상 후보에 추천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다.

2019 간호정책 선포식

10월 30일(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주영 국회의장을 비롯한 각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 여야 국회의원 60명과 그 외 유관단체장, 재외한인 간호사 등이 참석하였고, 전국의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과 간호가족 등 50,000여 명이 참가하여 성대하게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경남에서도 회원 및 간호대학생 등 3,000명이 대거 참가하였는데 이 중 경남 도내 16개 간호대학교에서 1,80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미래 간호사로서 감동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었다.

간호법 제정! 핑크빛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강호정 / 김해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간호사

2019년 10월 30일, 화창한 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 핑크 물결이 파도쳤다. 전국 각지에서 약 5만여 명의 간호사, 간호 학생, 재외한인 간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울 중심거리에 모였고 개인적으로 이번이 두 번째 참석하는 간호정책 선포식이었기에 더욱더 남다른 기대감과 책임감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이미 상당수의 간호사, 예비 간호사들이 모여 있었고 이 행사를 개최하는 목적인 '2020년 세계 간호사의 해' 및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 기념축제'와 동시에 간호법 제정, 보건의료 개혁이라는 슬로건이 곳곳에 걸려있어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면서 내가 속한 지역인 '경남' 자리에 착석하였다.

이번 선포식의 순서는 식전행사(전시 및 이벤트), 간호정책 선포식, 기념축제로 진행되었으며 사상 최대 규모인 만큼 엄청난 크기의 전광판을 통해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무대 위의 현장을 생



“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큰 힘이 되고 이는 곧 정책이 될 것이며, 결국에는 나와 우리 간호사들의 미래를 바꾸어 무엇보다 대상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의료서비스로 귀결될 것이라 나는 믿는다. 이번 간호사, 예비간호사들 한 명 한 명의 뜻이 이끌었던 발걸음, 목이 터져라 외쳐보았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간호법 제정, 보건의료법 제정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



생하게 전달받을 수 있었다.

선포식의 내용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전근대적인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으로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 개혁,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 활성화, 간호사와 의사 간 협력적 면허체계 정립,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 간호 관계 법령 체계 총정비 및 합리적 간호 전달체계 구축 등 간호정책 5대 중점과제를 선포했다. 이 중점과제들은 현재 실무하고 있는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간호사의 길을 가게 될 후배들에게도 꼭 필요한 과제들이며 이 중 몇 개는 빨리 제정되었으면 하는 간절함마저 생기게 해주었다.

이날 대한간호협회에서 배부해 준 피켓 앞면에는 '간호법 제정', 뒷면에는 'Nursing Now Korea'라고 적혀 있었다. 요즘 한참 간호사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캠페인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글로벌 캠페인과 함께 실제 간호사들의 인식개선도 함께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해 보기도 하였다.

너무 많은 인원이 한 날 한 장소에 모였고 유난히 추웠던 날씨와 김해와 서울을 오가는 긴 여정이었지만, 다 같이 한목소리를 내며 간호법 제정을 외쳤을 때 '이게 간호사들의 힘이구나! 우리 다 같은 마음이구나!'라는 동질감을 느끼게 해 주었고, 이 함성들이 나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으며, 현장에서 개개인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더 큰 울림으로 이어졌던 단합은 지역과 거리와 각자의 소속감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간호사'라는 이름으로 하나 됨에 가슴 벅찬 시간들을 선사해 주었다.

글을 마치기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 활동 간호사 인구는 1,000명당 4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활동 간호사 수인 9.7명의 평균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도 우리 간호사들은 24시간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의 현재와 먼 훗날의 미래를 위해, 서로 힘을 모아 현실의 변화를 만들고, 우리 후배들이 이어갈 길을 개척하고 닦을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으면 한다.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큰 힘이 되고 이는 곧 정책이 될 것이며, 결국에는 나와 우리 간호사들의 미래를 바꾸어 무엇보다 대상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의료서비스로 귀결될 것이라 나는 믿는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큰일을 할 수 있다.

— 마더 테레사

이번 간호사, 예비간호사들 한 명 한 명의 뜻이 이 끌었던 발걸음, 목이 터져라 외쳐보았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간호법 제정, 보건의료법 제정이 꼭 이루어져 모두가 소원하는 희망의 핑크 물결로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오기를 바라본다.



변화된 간호의 현장을 꿈꾸며

조희윤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진주에서 서울까지 와서 간호와 관련된 이런 큰 행사에 참여하게 된 자체가 간호대학생으로서 좋은 기회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의료법은 있는데 간호법은 아직 없다'는 것이었다. 공부를 하면서 의료법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 간호법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간호계의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은 있어도 법 제정의 문제까지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

위향상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간호인력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고 더불어 간호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간호사와 의사가 수직적 관계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병원이라는 업무공간 안에서 서로 협력적인 관계라고 생각한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와 의사 간 협력적인 면허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의료인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분을 노벨평화상에 추진하기 위한 캠페인도 눈에 띄었는데 그들은 한센병 환자들을 맨손으로 치료하고 그들이 퇴원하여 자립할 때까지 지지하고 보살피 주었다. 두 분의 헌신적 간호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또한 행사 현장에 많은 현직 간호사 선생님들과 간호대학생들이 모였는데 간호법 제정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 한목소리를 내는 그 순간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 너무 뜻깊고 자랑스러웠다.

간호사는 대상자를 간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또한 간호사로서 혹은 근무하는 간호환경의 어려움이 간호사와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것 또한 당사자인 간호사 혹은 의료인의 몫임을 깨달았으며, '간호사가 행복하면 그 행복의 에너지가 대상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위의 2019 간호정책 선포식 참가후기는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에서 참가한 간호학부 학생 전원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하여 받은 소감문 중 본회로 보내주신 3명의 학생 중 한 명을 선정하여 게재하였으며, 아울러 보내주신 백명화 학부장님 이하 교수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체험수기 1

2019년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간호사 문화축제 한똥 페스티벌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간호부는 매년 간호사 문화축제를 진행한다. 간호사 문화축제는 간호부의 미션인 '날마다 행복한 간호부'가 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인데, 2019년 간호사 문화축제는 간호부 문화위원회에서 선정한 '한똥 페스티벌'이란 주제로 약 6개월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간호사들이 다채로운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마지막은 모두가 함께 즐기는 치맥데이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 축제를 통해 신규간호사들을 포함한 간호부 직원들이 간호의 즐거움, 일의 의미를 찾고 자신의 일과 조직, 관리자, 동료에 대하여 따뜻한 유대감을 갖게 되었다. 바라는 창원경상대병원 간호사들이 이 조그마한 시간들로 인해 오늘 좀 더 행복해지고,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간호사들이길 희망한다. 행사에 참여한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스포츠 관람 (한화:NC 야구관람)

간호사 문화축제 행사 중 하나인 야구 관람을 위해 선생님들과 함께 2019년 9월 5일 마산 NC파크로 향했다. 비가 계속 오던 한 주였는데 그날은 마치 우리를 맞이하길래 하듯 하늘이 맑게 갠 기분 좋은 날씨였다.



힘들었던 근무를 잊고 설레는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NC구단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우리 병동이 아닌 다른 부서 선생님들과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간호부'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마음으로 같은 팀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다. 우리 팀의 공격, 수비 하나하나에 모두가 같이 열광하고 박수치고 때론 속상해하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우리들의 모습이 전광판에 비추어졌을 때는 더 열심히 응원할 수 있는 뭔지 모를 힘이 생기기도 했고 우리들만의 각별한 뜨거운 정이 느껴지기도 했다. 병원에서의 힘들었던 일과 스트레스는 우리들의 함성과 함께 멀리멀리 날려 보내졌고 부서와 연차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이런 한똥 페스티벌 축제의 장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꼭 참석하고 싶다. <전경옥/121병동 간호사>

음악회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희망, 사랑, 나눔 콘서트)

최근 결혼 준비까지 겹쳐 매일의 일상이 너무 바쁘고 여유 없이 지나가던 중에 병원 공지사항에 간호사 문화축제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게시되었다. 야구관람, 영화관람, 치맥데이, 트레킹, 음악회 중 원하는 이벤트에 자유롭게 참석하면 된다는 내용이였다. 음악회! 낯설기도 했지만 고등학교 시절 좋아했던 나윤권이 나온다는 소식에 기대를 품고 또 한편으로는 클래식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지루할 것이라는 편견도 가지고 참석하게 되었다.

2019년 9월 4일 오랜만에 여러 수간호사 선생님들과 동기들, 다른 부서 선생님들과 함께 성산아트홀 앞에서 사진도 찍고 즐거운 한때를 보낸 후 음악회 티켓을 받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입장을 했다.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희망, 사랑, 나눔 콘서트'의 첫 순서는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경기병서곡이 웅장하게 연주되었다. 여러 종류의 악기들이 다양한 소리로 멋진 곡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신기했다. 뒤이어 가곡, 비틀즈, 보헤미안 랩소디 등 익숙한 곡들이 연주되어 편안하게 즐길 수도 있었으며 오페라 호프만 이야기 중 인형의 노래를 부르는 소프라노 김수민의 테엽 풀리는 인형을 노래하는 부분은 정말 재미있었다.



대망의 나운권 무대가 시작되었고 우린 모두 감미로운 목소리에 심취해 열광하기 시작했다. 노래 4곡이 끝나자마자 약속이라도 한듯 앵콜을 외쳤고 나운권은 제일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노래 '나였으면'을 불러주었다. 고등학교 때 질리도록 이 노래를 듣고 불렀는데 그때 그 감성이 푹푹하게 올라와 눈시울이 붉어졌다.

음악회는 지루하다는 나의 편견을 깨고 1시간 30분 동안 굉장히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끝나고 난 후에도 아쉬워 노래를 찾아 듣고 유튜브 동영상을 검색하며 여운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솔직히 많은 동료들과 이런 시간을 갖기에는 3교대 특성상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간호사 문화축제로 이런 행사를 기획해주시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무표도 조정해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다. 그리고 우린 이러한 기회를 통해 더 끈끈해지고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종종 이런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진경/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영화관람 (타짜 3)



간호사 문화축제로 영화관람에 다녀왔다. 입사 이후 처음으로 이런 자리에 가보게 되었는데 평소에 영화를 즐겨 보는 편도 아니어서 가기 전에는 너무 어색할 것 같고 불편한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런데 막상 가서 여러

선생님들과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누며 너무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업무 중에는 위 연차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번 문화축제를 통해 그 거리감을 약간 줄일 수 있었고 직장은 업무만 하는 곳이라는 생각에 늘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 재충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자리였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간호사들은 이런 자리를 통해 위 연차 선생님들께 쉽게 다가갈 수도 있고 힘든 점,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업무에 대한 궁금증도 병원에서 보다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만나는 것보다 이런 기회를 통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이런 문화행사를 계속 개최하여 간호사들의 활기를 복돋아 주었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꼭 참석하고 싶다. <윤선혜/뇌졸중집중치료실 간호사>

트레킹 (대암산 숲속 나들이길)

개원 후 지금까지 해마다 간호사 문화축제가 있었지만 2019년 올해 문화축제는 더욱더 멋진 행사였다. 보통의 축제보다는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게 다양한 이벤트가 기획되었고 나는 그중에 '트레킹'이 가장 흥미로워 참석했다.



그날의 날씨는 쌀쌀한 공기를 머금고 있었지만, 햇빛은 따사로워 트레킹을 하기에 최적이었고 같이 참가하는 다른 여러 선생님들도 밝은 얼굴로 우리들을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사실 평소에 등산을 자주 하지 않아서 산을 잘 오를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생각보다 완만하고 툼툼이 쉴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셔서 힘들지 않게 잘할 수 있었다. 단풍이 좀 이른 가을 산은 울창한 나무와 깨끗하게 흐르는 물로 도시의 답답한 생활을 잊게 해주었고 우리는 산길을 걸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간식도 나눠 먹으며 연차 상관없이 이미 친밀한 한식구가 되어 있었다.

트레킹을 하는 동안 여러 갈래의 길과 여러 형태의 길을 만났지만 우린 같은 길을 선택했고 같은 목표 지점을 향해 함께 걸었다. 이처럼 우리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간호부도 병원의 다양한 직종들 중에 간호사의 길을 선택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음이 오늘 트레킹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진한 동지에도 느낄 수 있는 참 보람된 시간이었다. 트레킹을 통해 건강하

게 회복된 몸과 마음으로 환자들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주는 간호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불어 하게 되었다. 내년 트레킹도 기대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트레킹을 위해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주시고 사전 답사를 통해 좋은 코스를 정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김정순 팀장님 수육! 최고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정윤미, 김고은 /중앙수술실 간호사>

치맥데이



간호사 문화축제의 마지막 행사로 치맥데이가 있었다. 10월의 어느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일주일 전부터 D-day를 세며 출근했다.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다. 우리는 기분 좋은 퇴근 준비를 하고 치맥데이 장소로 향했다.

다. 3교대 근무 특성에 맞게 오후 1시부터 시간대가 배정이 되어 있었고 치킨집 한켠에는 예쁜 풍선 장식으로 포토존을 만들어 사진을 찍을 수도 있어서 참 좋았다.

우리 내시경실은 검사실 특성상, 다른 부서의 간호사들과 소통이 적어 처음엔 어색하고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새로운 선생님들 얼굴을 익히면서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오랜만에 마주치는 다른 부서 동기들 얼굴을 보니 너무 반가웠다. 함께 한 부서원들과 맛있는 치킨과 맥주 한잔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cheer up 할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귀한 화합의 시간을 간호사 문화축제를 통해 제공해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정주미/내시경실 간호사>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큰 행복을 전하는 선물이 되기를

김은영 /창원파티마병원 간호사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 베푸는 것에 대한 행복을 느끼고 봉사의 참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자전거 바퀴를 한 발로 굴릴 수 없듯이 서로 발을 맞추어 함께 달려간다면 어떤 것이든 해낼 수 있음을 팀원들과 함께 하며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한 하루하루였다. 우리의 작은 날개짓이 모든 이에게 선물로 다가가는 날들을 위해 앞으로도 나비팀의 날갯짓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 병원(창원파티마병원)은 내·외부 고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혁신팀'을 꾸리고 뒤이어 중간관리자 중심으로 된 '주니어팀'을 구성해 팀 구성 취지에 맞는 각자의 미션들을 수행해 나갔다.

각자의 팀 활동이 이루어지던 중 내·외부 고객 만족 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혁신팀'과 '주니어팀'을 합쳐 새로운 활동들을 계획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팀에 '나비 특공대'라는 팀명을 만들고 주어진 미션들을 수행해 나갔다.

이 과정들은 특별할 것 없이 지내던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었고 음식의 소금과도 같이 나의 일상에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결성된 '나비 특공대'의 첫 활동은 '내부 고객의 행복은 곧 외부 고객의 만족으로 이어진다'



이른 새벽부터 모여 토스트를 만들며, 꽃길만 걸으세요, 문구가 담긴 아침인사 엽서를 챙겨 나가는 과정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불평없이 서로를 격려하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아침인사 엽서 '꽃길만 걸으세요'

아침 거르지 마세요

소떡소떡의 파워

는 확산하에 '밥은 먹고 다니냐?'를 주제로 이른 출근길에 아침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깜짝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이른 새벽부터 모여 토스트를 만들며, '꽃길만 걸으세요' 문구가 담긴 아침인사 엽서를 챙겨 나가는 과정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불평 없이 서로를 격려하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 행복한 기운 그대로 직원들에게 전해진 이벤트는 놀라워하며 감사해하는 직원들의 얼굴과 인사를 통해 오히려 우리 팀원들이 더 행복해지는 선물 같은 하루로 남게 되었다.

첫 활동의 여운이 가실 때쯤 우리 팀은 다음 이벤트를 위한 또 다른 계획을 세웠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던 중 우리 팀의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된 먹거리를 만들어 새해가 시작되는 밤 묵묵히 그 자리에서 병원을 밝히고 있는 이들을 위해 전달하기로 하였다. 여러 가지 먹거리들 중 그맘 때쯤 가장 핫하게 떠오르던 소떡과 팝만두, 간단한 음료를 준비하기로 결정 후 우리의 작업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서로 힘을 모으며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받는 이들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모든 팀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 나가기 시작했고 그 행복을 담은 음식들은 하나둘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12시 새해가 시작됨과 동시에 '해피 뉴 이어'를 외치며 시작된 배달 서비스에 새해 떠오르는 해보다 더 밝은 웃음으로 우리들을 맞아 주는 모든 직원들의 얼굴을 보며 힘찬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이었다.



간단한 아침 드세요

올해의 마지막 활동으로 병원에서 시행하는 50개의 불빛 중 내부고객인 직원에 대한 봉사와 더불어 외부 봉사로 우포늪 정화 활동을 계획하였다.

주말 오후 가을의 화창한 하늘을 지붕 삼아 소풍 가는 기분으로 출발 후 도착한 우포늪에서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주우며 자연을 느끼고 온 생명을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우포늪의 청결은 우리 손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 베푸는 것에 대한 행복을 느끼고 봉사의 참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자전거 바퀴를 한 발로 굴릴 수 없듯이 서로 발을 맞추어 함께 달려간다면 어떤 것이든 헤낼 수 있음을 팀원들과 함께 하며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한 하루하루였다.

우리의 작은 날갯짓이 모든 이에게 선물로 다가가는 날들을 위해 앞으로도 나비팀의 날갯짓은 계속될 것이다.



거창군간호사회
회원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회원들이 모여 만든 한지공예 작품들과
퀼트 동아리 <꿈지락>의 작품입니다.



어머니의 난蘭

이숙련 /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친정에 가니
식탁 옆에서 난이 꽃을 피우고 있다

아버지 환히 웃으시며
엄마가 난을 잘 키우신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자태가 친정의 공기를 닮아 있다

여름 내 거실로 마당으로
자리 바뀌 앉히며 보살피시던
그 난이네

이리저리 살펴 키워
부모 닮아진 자식들
세상에 다 내놓고

이제 난 꽃피우며 소일하시네



Happy, Happy Birthday!!

김현정 / 창원경상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12병동 전담 간호사



병원에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생일을 잊은 채 일했던 적이 많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내 생일을 잘 모르고 넘어간 적도 많다. 생일 때는 가급적 오프를 신청하여 식구들과 지내기도 하지만,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그다지 즐겁지는 않았고 좀 우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또 가끔은 간호부 행사로 신규간호사들에게 100일 잔치를 열어주기도 했는데, 사실 부러운 마음이 들었던 적도 있었다. 우리는 언제 저런 챙김을 받을까? 장난처럼 동료와 대화하던 때가 기억난다.

마치 이런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위해 “짜잔~” 우리 병원의 간호사회 회원 섬김팀에서 올해는 ‘간호사 생일 챙겨주기’라는 이벤트를 시작하였다(간호사회에서는 해마다 주제를 가지고 회원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10년 동안 병원 생활하면서 선배와 후배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생일 축하를 받으니 묘한 감정이 들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누군가에게 축하를 받는 게 내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하다 보니 환자나 보호자를 위로하고 같이 슬퍼하는 일들이 많아 기쁨이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회색빛 일터에서 생일 축하를 받고 서로의 생일을 축하해주니, 기분이 좋으면서도 어색하고 부끄러웠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해 나를 인정해주고 챙김을 받는 것 같아 너무 행복했다. 거창하지는 않지만 이 소소한 생일 이벤트로 인하여 우리 모두 한 번씩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동료 간호사들과 짧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최근 간호사 태움 예방 때문에 동료들 간에도 다소 서먹해지고 삭막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 내 생일 기념일을 축하받고, 다른 동료 간호사들의 생일을 축하해주면서, “생일 축하해”라는 말 한마디에 따뜻함을 느낀다. 더불어 함께 근무하는 부서원들과 좀 더 각별해지는 동료애도 생기는 것 같아 좋다.

다음에는 애사심과 동료애가 생길 수 있는 입사기념일을 챙겨주는 이벤트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물론, 준비하시는 회원 섬김팀에서는 힘드시겠지만...).

간호윤리 상황극을 마친 후

신지선 /경상대학교병원 간호부 외과계중환자실 간호사



간호사에게는 언제나 직면하게 되는 갈등의 순간...; 또한 갈등의 순간에도 결정을 해야만 하고, 긴 시간의 고민이 아니라 긴박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아~~ 나는 이제 이 현실과 많이 타협을 해버린 너무 올드 간호사는 아닐까? 우리 신규간호사 선생님들은 어떤 순간이 당황스럽고, 갈등 되고, 긴장의 순간인지가 저도 모르게 궁금해졌다.

또한 나와는 다르게 신규간호사 선생님들은 이런 순간을 어떻게 이겨나갈지를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니 고민이 앞선다.

신규간호사 선생님의 입장에서 직면한 간호윤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생각한 순간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 간호사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광고 포스터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를 보고 이 포스터를 모티브로 시나리오 작성을 시작하였고, 나 또한 간호사이고 신규간호사 선생님 또한 간호사이므로 우리를 함께 묶어줄 부분이라는 생각에 함께 모여서 시나리오 작성을 시작하게 되었다.

함께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순간순간 빛나는 아이디어가 모여서 RN(Remember Nitingale!)이 드디어 탄생하게 되었다.

연극을 전혀 접하지 않은 우리 간호사 배우들에게 본인 역할에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면서 처음 보다 점점 발전하는 모습에 스스로에게도 격려를 하게 되었다. 서울의 대형 병원들이 우리의 경쟁 상대라는 발표가 당황스럽고 긴장을 하게 하였으나, 서울에서는 할 수 없는 우리만의 것으로 경쟁해보려는 생각으로 아예 사투리를 강화해서 극을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간호윤리 상황극 발표를 위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입성한 당일 대기실에서 서울의 타병원 발표팀과 모여 타병원 간호사 선생님들의 표준어를 듣고 기죽어버린 우리 아마추어 배우들에게 “우리는 표준

어를 흉내낼 수 있으나 저들은 사투리라는 강점이 없으니 마음껏 사투리로 질러라”라고 격려를 하였다. 사실 무대경험이 없는 후배 배우들에게 연습하면서 계속 강조하였던 것은 “분명 서울의 강당에 서게 되면 선생님들의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대사도 내가 무엇을 할지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연습이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대사를 하고 있고 몸은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연습에 연습을 하였다. 근무를 병행하면서 하였던 연습의 순간은 힘들었으나 함께 연습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알게 되고, 매력과 친밀감을 느끼고 나 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완벽한 하나의 팀을 만들어 갔다.

행사 당일 상황극의 중요한 순간에 극의 긴장과 재미를 살려주어야 하는 음향과 동영상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긴장의 순간을 경험했으나 역시나 무난히 해결하였다.

대기실에서 우리 경상도 사투리가 촌스럽다고 기죽어하면서 주눅 들었던 우리 배우들은 언제 그런 격정을 했냐는 듯이 실전에서 완벽하게 본인의役に 동화되어 신들린 듯이 배역을 소화하였고, 그것도 제한 시간 10분에 9분 59초를 딱 맞추어 완벽한 공연을 마치고 시골에서 상경한 경상대학교병원 간호부가 서울의 대형병원을 이겨낸 감동의 순간은 너무 짜릿했다. 1등과 2등의 발표를 남겨놓고 2등이 신촌세브란스병원임이 발표난 순간 모두가 하나 되어 일어나 2등 병원을 격려하는 듯하였으나, 실제로는 경상대학교병원 간호부가 1등이라는 사실에 모두 하나 되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강당이 떠나갈 듯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2등 병원 관계자들의 따가운 눈초리에 슬그머니 모두 자리에 앉았던 모습이 지금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상황극 참여자뿐 아니라 응원을 위해 함께 먼 서울까지 거주했던 배혜란 부장님, 수간호사 선생님 모두가 함께한 감동의 순간이었다.

본인이 하고 있는 간호윤리상황극에 간호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리허설에 참여하시고 서울까지 함께 하시면서 직접 격려해주시는 배혜란 부장님께 아직은 어린 우리 배우들은 경상대학교병원 간호사임이 자랑스럽고 병원에 대한 애사심이 생겨난다고 한다. 너는 경상대학교병원의 간호사이므로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어렵게 알려주지 않아도 함께했던 동료, 병원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스스로 생기고 자랑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았다. 준비의 순간은 힘들었지만 스스로 “선생님! 저희 한 번 더 공연하면 안 되나요!”라고 저에게 스텝없이 말하는 우리 RN팀이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상황극의 마무리처럼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나는 경상대학교병원 RN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꼭 가보시라 아픔과 서러움이 잔존해 있는 도시 '목포'

이인희 / 김해사랑병원 간호부장

정말 힘없이 나라 잃은 서러움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되었고 이분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안락함을 누리다 고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교차되면서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의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 하나 된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

빡빡한 일상들을 잠시 뒤로하고 전남 목포를 가야대학교 보건대학원 1기 졸업생들과 당일로 다녀왔다. 지인들로부터 목포는 한 번쯤 가 볼 만하다는 말만 듣고 뭐가 좋은지도 잘 모른 채 목포를 여행의 목적지로 정하게 되었다.

이른 아침부터 출발하여 도착한 우리의 첫 코스는 국내 최장을 자랑하는 목포해상케이블카 북항 승강장이었다. 아직 오전인데도 주차장에 많은 차들로 메워져 있었고 매표소에 여행객들로 북적였다.

북항 승강장을 출발하여 유달산 승강장에 내려 계단을 오르니 유달산 정상이었다. '목포' 하면 유달산이라고 한다. 또 유달산을 다녀오지 않으면 목포는 가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유달산은 그리 높지 않은 아담한 산이었다. 케이블카가 운행되기 전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많은 여행객들이 걸어서도 오르는 산이었다고 하니 말이다.

평균 나이 50인 우리 동기생들은 나이도 잊은 채 잠시 정상에서 재밌는 포즈를 취하며 사진도 찍고 목포 시내도 내려다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일본은 태풍이 지나간다고 난리였으나 목포의 날씨는 얼마나 좋던지 여행하기에 아주 좋았다.

유달산을 출발하여 등산길과 시원한 바다도 내려 보며 담소를 나누는 사이 고하도에 도착하여 내려오니 일정에 쫓기어 고하도는 다시금 와 봐야 할 곳으로 두고서 케이블카를 타고 돌아와야만 해서 아쉬웠다.

목포에 가면 꼭 먹어야 한다는 민어회 세트를 회원들과 맛있게 먹고 목포 여행 필수 코스인 근대역사관으로 향했다. 목포 근대역사관 2관은 구 동양척식주식회사로 일제가 한국의 경제를 독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수난의 역사와 1920년대 말 잊혀져 가는 목포의 옛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곳으로 안으로 들어가니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잔인한 일제 침략 사진들과 독립을 위한 우리 민족



목포 근대역사관 2관(구 동양척식주식회사)

의 치열함이 보여지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전시관엔 '임산부나 어린아이들, 심신이 미약한 자는 주의'라는 경고 문구가 있을 정도라면 어느 정도 잔인한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 우리 일행 중 한 선생님은 잔인한 학살 사진들을 보다가 속이 울렁거린다고 나가야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별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마음이 무거웠다. 차마 뭐라 말해야 할지도 웃을 수도 없었다.

어쩔 일본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잔인하게 괴롭혔을까를 생각하니 정말 화가 나고 가슴이 아팠다. 그러니 일본과는 가위바위보를 한다 해도 지면 안 된다고들 하지 않는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10분 정도 가니 근대역사관 1관이 보였고 초입엔 평화의 소녀상이 자리하고 있어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하며 일행과 함께 사진에 담았다.

목포의 근대 건축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근대역사관 1관은 1897년 10월 목포항이 개항된 후 일본의 영사업무를 위한 영사관 건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해설사의 말에 의하면 목포의 추운 북쪽엔 조선인이 살게 만들고, 따뜻한 남쪽엔 일본인이 적산가옥을 지어 거주하게 만들어 도로를 반듯하게 정비하고 자동차와 자전거 그리고 인력거를 목포에 들여오게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다가올 시련은 상상도 못한 순진한 조선인은 이런 변화를 보며 드디어 좋은 세상이 온다고 좋아하기도 했다고 한다. 잘 정비되어 예쁘다고 느꼈던 그 거리가 과거에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던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곳이었다니 마냥 좋게 만은 느껴지지 않았다.

1관 건물의 천장 무늬나 전등 하나에도 일본이 세계를 다 집어삼키겠다는 야심이 묻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 멋진 건물이 예쁘게만 보이지 않았고 과거 근대사의 아픔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잠시나마 나를 숙연해지게 만들었다.

근대역사관을 둘러보고 뒤쪽으로 가보니 '방공호'가 있었다. 미국의 상륙을 대비하기 위해 일제가 조선인 징병을 동원하여 만든 곳으로 공중에서 가해지는 폭격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사적 목적



목포 근대역사관 1관(구 목포 일본영사관)



독립문 앞에서 만세를 부르며



목포대교를 배경으로 촬영



목포는 호남의 쌀과 자원들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항구도시로 아픔과 서러움이 잔존해 있는 도시이다.

이번 여행을 계기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해 보고자 한다.

목포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의 방어시설이라고 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서 힘든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많이 희생되었다고 하니 이 또한 처절한 역사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려왔다.

정말 힘없이 나라 잃은 서러움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이분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안락함을 누린다고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교차되면서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의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 하나 된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목포는 한마디로 호남의 쌀과 자원들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항구도시로 아픔과 서러움이 잔존해 있는 도시라는 것과 근대사는 한 번도 공부를 해볼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 여행을 계기로 제대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해 보고자 하는 마음의 다짐도 하게 되었다.

짧은 여행이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꼭 가보시라고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다.

일본과 관련된 뮤지컬이나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보아도 애국심이 생기겠지만 목포를 둘러본다면 아픈 산 역사를 느끼며 애국심이 절로 생겨날 것이라 확신한다. “과거를 잊은 국민에게 미래는 없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다음엔 같은 아픔이 있는 군산 여행을 하리라 마음을 먹으며...

늦깎이 신규간호사 비상하다

박정민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간호사

삼성창원병원에 입사한지 약 18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활동을 하면서 나 스스로도 만족과 행복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대학원 진학을 우선 순위로 두고 현재 ‘법의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미래의 유능한 ‘법의간호사’로서 또 다른 성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노력을 하고자 한다.

2017년 1월, 6개월간의 기나긴 입사 전형을 무사히 마치고 드디어 나의 간호사로서의 첫 직장인 삼성창원병원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다. 당시 군대를 다녀온 남학생치고는 어린 나이 26살, 하지만 입사 동기들과는 나이가 2살이나 차이가 나기에 최대한 짧은 발령대기를 기대한 나였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매일 휴대 폰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삼성창원병원입니다. 2018년 신규간호사 박정민 님은 18년 ○○월부로,, (중략)’라는 문자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3월, 4월, 5월, 6월... 11월, 12월 계절이 4번이나 바뀔 동안 우리 병원의 발령 문자는 오지 않았다. 당시 카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간호학과를 졸업한 나로서는 자존감과 병원에 대한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고 어렵게 합격한 삼성창원병원을 그만두고 바로 입사하여 일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보기까지 하였다.

그렇게 마음이 상송생송하던 나날들을 보내던 중 2019년 1월 말, 드디어 발령 문자가 오고 2018년 신규간호사의 마지막 주자로 삼성창원병원에 입사하게 되었다. 돌아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늦게 입사한 것이 지금의 병원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 같다.

첫 번째로 입사 후 몇 달 지나지 않고 후배간호사가 입사하여 막내 생활을 짧게 끝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동기 간호사가 이미 병동에 적응을 마친 상태라 편하게 자문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발령 파트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외과계중환자실, 응급중환자실과 같은 특수파트에서 근무하고 싶었지만 결과는 ‘61병동’ 메인 파트가 비뇨기과, 서브 파트로 일반외과와 신경외과 환자들을 간호하는 병동이었다. 그렇게 61병동에서 늦깎이 신규간호사의 파란만장한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다.

우선 삼성창원병원의 병동 남자간호사는 전 병원을 통틀어 나 혼자 밖에 없었다. (당시 응급실에는 동기 남자간호사가 3명 있었다.) 그러다 보니 약국을 갈 때나 식당을 갈 때 모든 병원 직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아

민망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나라는 존재로 인해 더 이상 삼성창원병원의 병동 남자간호사는 특이하고 신기한 광경이 아니게 되었다. 또한 남자간호사는 무조건 간호사로서의 근무보다는 공무원, PA를 지원한다는 편견도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몇 달...

병동의 생활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팀 간호를 하는 병동의 특성상 짧은 두 달간의 트레이닝 후, 한 팀의 차지 간호사가 되었다. 그렇게 고대하던 간호사 생활이어서 그런지 업무가 그렇게 어렵다거나 고되지는 않았다. 나이트 근무를 하게 되면 급성기 병원이긴 하지만 조용한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느 하루는 경력만 쌓아나가며 무료한 병원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와 동시에 입사한 지 만 1년도 되지 않았던 나에게 첫 기회가 오게 된다. 그것은 바로 ‘Blue diamond project’,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나는 병원의 홍보와 여러 가지 행사를 담당하는 팀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많은 활동들 중에 나의 병원 생활의 전환점이 된 ‘버스킹’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학창 시절 노래를 즐겨 불렀었고 곧 잘했었던 기억으로 장기를 살려 병원 직원 및 방문객들을 위하여 버스킹을 하게 되었는데 이날 이후로 간호부뿐만 아니라 병원 내에서 스타가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러브콜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어서 간호부 ‘병동 간호사 기 살리기-널스트롯’이라는 활동에서도 대표 가수로 노래를 불러 또 한 번의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활동들의 공로를 인정받아 인턴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간호사 선배로서 병원 활동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고 최근에는 타 병원 및 본 병원의 관리자 및 예비 관리자 선생님들 앞에서 ‘그릿-성공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추천받아 나의 활동들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

내가 이러한 활동을 함으로써 다른 후배간호사들도 ‘간호’라는 업무 이외의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의 활동들을 통하여 간호부 이외의 다른 부서의 직원들과도 친교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019년 9월 10일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삼성창원병원에 입사한 지 약 18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활동을 하면서 나 스스로도 만족과 행복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에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행복과 성공을 위하여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게 된 계기는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의문사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간호사의 시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라는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조사를 했었고 그 결과 2019년 11월, 대구 경북대학교 특수대학원 내 수사과학대학원의 입사 전형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학원 진학을 우선순위로 두고 현재 ‘법의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미래의 유능한 ‘법의간호사’로서 또 다른 성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노력을 하고자 한다.

앞으로의 목표 달성과 성공을 위하여 경남간호사회 ‘Cheer Up’ 프로그램에 꼭 참가하여 재충전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이 수기의 마침표를 찍는다.

간호사 Cheer Up을 다녀온 후

정나래, 박현정 /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간호사

매일 출근을 하고 근무를 하다보면 어렸을 때 꿈꿔왔던 간호의 이미지와 멀어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간호사의 신념과 의미 되새기기를 통해 간호사와 관련된 자료 영상이나 영화 등을 감상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간호에 대해 써보는 시간을 가져서 본인들이 가진 간호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나눔연수원에 도착해서 박형숙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본회의 간호 관련 활동 및 정책 현황 보고 영상을 보았다. 현재 의료가 관과 지역사회에서의 건강관리를 실현할 간호 단독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세계 80여 국가에서는 독립적인 간호법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간호법이 존재하지 않아 단독 간호법 통과를 위해 클린정치의 일환으로 간호사도 1인 1정당에 가입하여 지지하는 국회의원에게 힘을 실어주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간호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단독 간호법 통과를 기대

해 본다. 간호사회가 정책적으로 회원들을 위해, 또 환자들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간호의 역사에 대한 강의도 들었고, 일제강점기 때 뜨거운 민족의식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다. 유명한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의 부인인 박자혜 독립운동가



또한 간호사였다. 그 당시 군자금 모집, 적십자 활동, 사회 운동, 첩보 활동, 비밀 연락 등의 다양한 활동을 했었고 간호사들도 독립운동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았고 선배간호사들의 애국심에 숙연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사람에게서 희망 찾기’라는 주제로 김연준 (사)마리안느와 마가렛 이사장의 특강을 들었다. 과거 소록도는 한센병 환자들의 감옥이었으며 섬과 육지를 두고 철장을 치고 출입을 통제할 만큼 고립되어 있었다. 그때의 한센병은 유전병이라는 억측으로 자식이 한센병에 걸리면 일가족이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어 숨겨두거나 버리는 일이 많았으며 소록도는 그 버려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다. 얼굴이 망가지고 손과 발이 문드러질 때 맨손으로 손을 잡아주고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같이 밥을 먹으며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사람이 바로 마리안느와 마가렛이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오스트리아에서 온 간호사였으나 수녀라는 소문이 퍼져 대한민국에서 지원금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고향 오스트리아에 편지를 써서 받은 기부금으로 한센병 환자들을 도왔다. 간호 활동을 43년이나 지속했고 늙고 병들어서야 집이 되기 싫다며 한국을 떠났다. 지금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지만 당시에는 걸리면 죽고 사람대우를 못 받았던 한센병 환자들을 부모님 같은 헌신으로 돌봐주고 급여조차 없었지만 환자에 대한 사랑과 간호에 대한 신념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 존경스럽고 현재 추진 중인 노벨평화상을 꼭 수상할 수 있길 소망한다. 그 외에도 연수원 내 기념관 방문과 현장 방문으로 중앙공원, 현장 관사 박물관을 둘러보았다.



매일 출근을 하고 근무를 하다 보면 어렸을 때 꿈꿔왔던 간호의 이미지와 멀어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간호사의 신념과 의미 되새기기를 통해 간호사와 관련된 자료 영상이나 영화 등을 감상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간호에 대해 써보는 시간을 가져서 본인들이 가진 간호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관한 강의를 들으면서 일을 하다보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적절한 휴식을 통해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이야기를 들으며 대단하다는 느낌과 동시에 혼자서만 한국에 왔으면 그 긴 시간 동안 간호활동을 하기 힘들었을 것 같고, 마리안느와 마가렛처럼 서로 힘이 되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신규간호사들과 선배간호사들, 그리고 동기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입원 조현병 환자의 증상, 심리적 유연성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재운 / 국립부곡병원 정신전문간호사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입원한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상, 심리적 유연성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입원한 조현병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일개 3개 지역에 소재한 4개의 정신전문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입원한 18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1월 20일부터 2019년 2월 19일까지 1개월간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삶의 질은 증상($r=-.41,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심리적 유연성($r=.52, p<.001$), 사회적 기능($r=.53, p<.001$)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입원한 조현병 환자는 증상이 호전되고 심리적 유연성과 사회적 기능이 향상될수록 삶의 질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입원한 조현병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beta=.43$)와 심리적 유연성($\beta=.42$)이었으며, 이는 삶의 질에 대하여 43.0%($F=71.27, p<.00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결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입원한 조현병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며, 심리적 유연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키워드: 조현병, 증상, 심리적 유연성, 사회적지지, 삶의 질

중환자실 간호행위에 대한 수가

남현아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호사 · 강인순 /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연구목적: 행위별 수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중환자실 간호행위 중 수가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되는 업무를 확인하고자 수행된 전향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방법: 중환자실 근무 경력 12개월 이상의 간호사 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수가개발이 필요한 업무를 확인하고, 수가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된 38개 간호행위 중 7개 간호행위에 대해 수행시간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행위별 수가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안된 중환자실 간호행위는 38개 항목이었고 수가 개발이 필요한 이유로는 '간호인력 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간호행위', '최소 근무조마다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간호행위',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는 간호행위', '환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간호행위',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간호행위', '치료와 관련하여 중요성이 강조되는 행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119개의 중환자실 간호행위 중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관련 수가 항목이 있는 간호행위는 66개였으나 독립된 간호행위 수가로 정의되어 있지 않았고 간호사의 기여도 역시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중환자실 간호행위에 대한 정의 및 표준절차를 제시하고 간호행위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 간호 업무량에 대한 상대가치 및 간접비용을 고려한 행위별 간호수가 개발을 위한 지속적 연구를 제언한다.

키워드: 간호행위, 간호수가, 중환자실

병원 간호사의 재난 간호지식, 준비도 및 핵심 수행능력에 관한 연구

김화영, 심봉희 /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간호사 • 공정현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 발생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재난간호 지식, 재난간호 준비도, 재난간호 핵심 수행능력에 대해 서술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C병원의 간호사 1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9월 3일부터 2018년 9월 24일까지 총 4주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ver.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및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재난간호지식은 25점 만점에 평균 17.66±3.01점, 재난간호 준비도는 130점 만점에 74.86±15.09점, 재난간호 핵심 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05±0.57점으로 나타났다. 재난간호 핵심 수행능력은 재난간호 준비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난간호 핵심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재난 간호 준비도가 있었으며, 설명력은 62.5%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재난 간호준비도가 재난간호 핵심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 향후 병원 간호사의 재난간호 준비도 향상을 위해 단순 강의식 교육이 아닌 체험형 위주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병원 자체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병원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 유형별 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모의훈련을 할 수 있도록 표준 교육안 개발을 위한 기관의 제반 여건 확대가 필요하다.

키워드: 병원간호사, 재난, 재난 간호지식, 재난 간호준비도, 핵심 수행능력

병원 간호사의 팀 공유정신, 팀 효과성, 팀 응집력, 팀 신뢰도 및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이지은, 심봉희 /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간호사 • 이해랑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팀 공유정신, 팀 효과성, 팀 응집력, 팀 신뢰도를 파악하여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직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서술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9년 1월 17일부터 1월 22일까지 C시내에 있는 500명 이상의 종합병원에 재직 중인 간호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ver.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팀 공유정신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6점, 팀 효과성 점수는 5점 만점에 3.68점, 팀 응집력 점수는 9점 만점에 6.06점, 팀 신뢰도 점수는 7점 만점에 4.74점, 이직의도 점수는 5점 만점에 3.07점으로 나타났다. 팀 신뢰도는 팀 공유정신, 팀 효능감, 팀 응집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팀 응집력은 팀 공유정신, 팀 효능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 효능감은 팀 공유정신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팀 공유정신이 높을수록 팀 효능감이 높을수록, 팀 응집력이 높을수록, 팀 효과성이 높을수록, 팀 신뢰도가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팀 공유정신, 팀 효과성, 팀 응집력, 팀 신뢰도라는 새로운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향후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와 팀 신뢰도 및 부서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팀 공유정신, 팀 효과성, 팀 응집력, 팀 신뢰도, 이직의도

일개의 종합병원 간호사들의 손위생 수행 시점에 대한 지식조사

류정임, 장귀석, 정혜영, 박진경, 최미혜, 손나래 /마산의료원 간호사

연구목적: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손위생 수행 시점에 대한 지식을 조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손위생 문화를 구축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일개의 종합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손위생이 필요한 정확한 시점에 대한 지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WHO(2009)의 “손위생 시나리오 사용자 지침(Hand Hygiene Scenarios User Instructions)”을 이용하여 지식차이를 평가한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는 문항과 손위생이 필요한 시점에 대한 지식을 조사하기 위한 지식측정 시나리오로 구성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손위생 수행 시점에 대한 지식 점수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점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사들은 매년 1회 이상의 손위생 교육을 받고 있어 손위생 이행을 위한 충분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부분 간호사들은 감염관리실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손위생 교육이라고 하였다. 이는 간호사들이 손위생에 관하여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들이 가장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손위생 모니터링의 업무를 주로 감염관리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결론: 종합병원 간호사들의 손위생 시행 시점에 대한 지식 조사를 하였고, 간호사들은 손위생 교육에도 불구하고 환자 주변 범위의 모호함, 손위생 수행시점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손위생 수행 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위생이 필요

한 시점은 잘 알고 있으나 필요 없는 시점에 대한 지식이 낮아 필요 없는 시점에서도 손위생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었다. 복잡한 임상현장에서 손위생 필요 유·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간호행위별 시점 기준에 대한 교육 강화와 손위생 모니터링 시 필요 없는 시점에서의 손위생 이행에 대한 피드백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손위생, 손위생 지식조사

폐쇄성 폐질환 환자 맞춤형 흡입기 교육 프로그램 적용 효과

김유미 /경상대학교병원 간호사 · 유미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다양한 흡입기로 치료받는 천식 및 만성폐쇄성 폐 질환 환자에 대한 맞춤형 흡입기 사용 프로그램(TIUEP) 및 일상적인 임상 실습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설계에 의한 유사 실험 연구이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로 본 연구 대상은 J 도시에 있는 900명 이상의 3차 병원에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을 받아 입원한 성인 환자 중 흡입기를 처방 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인 환자 60명이었다. 자료는 Chi-square, paired t-test and independent t-test with the SPSS/WIN 22.0 program, 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 맞춤형 흡입기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군에서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인지수준(천식; $t=2.25, p=.047$, COPD; $t=6.29, p=.001$)과 흡입기 사용 실천정도($t=5.51, p<.001$)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론: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인지수준과 흡입기 사용 실천 정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연령 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어: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흡입기,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일 대학병원 간병인의 의료관련 감염관리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및 손의 미생물 오염도와와의 관계

이희진, 박은주 /경상대학교병원 간호사 · 전미양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 대학병원 내에서 입원환자를 간병하는 간병인을 대상으로 의료관련 감염에 대한 불안, 의료관련 감염관리 인지도, 의료관련 감염관리 수행도 및 손의 미생물 오염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의료관련 감염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 9월 3일부터 5일 까지로 본 연구의 대상은 일 대학병원 내에서 입원환자를 간병하는 개인간병인 59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 Win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및 결론: 의료관련 감염관리 수행도와 의료관련 감염관리 인지도($r=.641, p=.001$), 손의 미생물 오염도($r=-.316, p=.015$)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연구 대상자의 의료관련 감염관리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인지도와 감염관리 교육경험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관련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병인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의료관련 감염관리, 불안, 인지도, 수행도, 손의 미생물 오염도

2019년도 '간호정책 아카데미 & 간호교육 질 향상 세미나' 개최

최근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양상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복지 분야에서 간호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간호사를 위시한 간호 인력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지고 있기에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체계 정립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노력들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국가 평균 80.7년과 비교해 상위국에 속하나 OECD국가 평균과 비교해 현격히 부족한 의료자원,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격차 증가, 의료종사자의 높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처우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참으로 많다.

따라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간호 현실에서 책임만 더해지고 간호인력 정책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추가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일이 될 것이다.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는 국민이나 직역은 없습니다.”

“간호법은 모든 간호 인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으로서 국민을 보호하고 대상자에게 더 나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입니다.”



1. 간호정책 아카데미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정책 개발, 보건의료 및 간호 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이해의 증진, 경남도내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과 보건의료정책 관련 인사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간호정책아카데미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현황'이라는 주제로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의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사회구조와 질병 양상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기본법인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또한 간호계의 역사를 재조명해보며 간호사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과 계기가 되었다.

간호법 제정 왜 필요한가?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형식적·내용적·경제적 측면에서 요약해 볼 때, 먼저 형식적 측면에서는 단독 간호법을 마련하여 건강 중심의 간호법 체계 정립과 질병 구조,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체계 수립을 위함이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간호업무의 전문화 다양화 실현과 의사의 진료업무와의 관계 정립, 간호업무, 면허·자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법체계를 정비하고,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간호사 임금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며 또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건의료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간호법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등의 건강관리로 의료비를 절감시키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간호법의 주요 내용은?

간호법의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 ▶ 요양보호사를 간호 범주에 포함하여 지역사회 간호 돌봄 체계 정립
- ▶ 간호사 등의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 규정
- ▶ 환자의 권리 명시
- ▶ 환자권리와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간호사 및 조산사 업무
- ▶ 간호인력 등의 처우 개선
- ▶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간호 인력이 참여하는 간호 인력 정책수립 등

간호법은 왜 필요한가?

간호사의 업무를 간단히 1) 간호, 2) 진료의 보조, 3) 보건활동으로 축약해 볼 때, 간호사가 활동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의료법이 이 모두를 규율하지 못하며, 각각의 경우 개별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간호 관계 법령은 80여 개가 넘는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간호 관련 인력은 의료기관은 물론 다양한 지역사회(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영유아시설, 아동보호시설, 체육시설, 건강지원센터 등)의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활성화를 충족하기 위해 간호 관련 인력들의 업무기준과 범위를 설정하여 이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 미비상태를 해소하고 각 간호 인력들이 안전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일하고, 국민들 또한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즉,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안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의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 법은 간호사 직역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에 세계 90여 개 이상의 국가에는 이미 간호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II. 간호교육 질 향상 세미나 (간호대학·병원간호부)

주제 : 효과적인 임상실습 운영 방안

경남도내 16개 간호대학(학과)과 병원 간호부에서 참석하여 서로 간의 원활한 소통과 정보교류, 간호사의 사직·이직 관련 주요 현안 논의 및 해결방안의 모색, 그리고 간호대학과 병원 현장에서 요구도가 높은 교육 및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분회 교육위원회 최소영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효과적인 임상실습 운영 방안' 주제의 그룹토의는 각 병원 부서장과 간호대학 교수가 참석하여 의견 교환 및 효과적인 운영방안 모색 등을 제안하였다.

그룹토의 의견 및 해결방안

1. 대학측

- 1) 관찰주의 임상실습으로 인한 실습만족도 저하 및 임상수행능력 부족 초래로, 가능한 실습의 허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2) 실습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활성화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해야 하기에 임상실습 이수시간을 1,000시간 이상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임상에서 간평원에 건의해주기 바람
- 3) 교수들의 임상경력 단절로 인한 교육의 어려움이 있어 최신 임상경향을 알 수 있도록 간호협회 차원에서 교육과 관련된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학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이에 따른 예산 편성 요청함
- 4) 학생 실습교육과 임상 현장과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시대 추이를 반영하여 대학과 병원간의 지속적인 논의 및 노력이 요구됨

2. 병원측

- 1) 대학에서의 기본간호 핵심기술 교육을 통한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보다 인성교육, 목표의식 고취, 직업에 대한 정체성 확립, 체력향상 등에 대한 내용들을 선제적으로 교육할 필요성에 따라 인성, 소통, 공감, 스트레스 관리 등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관련 교과목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함
- 2)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 문제해결 방안이 절실함에 따라 대형병원의 발령대기자(waiting) 수 감원 또는 간호사 수 대비 적정 대기자 수를 규정화 할 필요성에 따라 대형병원의 대기인력을 활용한 인턴제도 운영의 필요, 신규간호사 임금 적정 수준 인상 필요(인상 후 이직·사직율 감소), 신규간호사 교육 시 소통 및 관계의 중요성이 절실함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의 1:1 교육 등이 필요함
- 3) 프리셉터의 업무상 애로사항 해결 등에 따른 적정 수당의 지급이 필요함

한편, 교육 현장에서의 임상 현장에서 역태움의 의견이 제시되어 교육 및 임상과의 연계 모색을 위한 많은 소통들이 이루어졌으며, 이날 참석자들이 건의사항으로 제시한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경력단절 후 고 연차자의 재취업 시 임상 적응 문제'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졌다.

<정리/ 김은희 편집위원>



경남간호사회 이모저모

2019



2019년 본회 주요소식

제75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제75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3월 20일(수) 그랜드메리큐어 앰배서더 창원 그랜드볼룸에서 대의원 및 내·외빈 등 총 27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시스템 혁신 주도' 주제로 개최하였다.

박형숙 경상남도간호사회장의 개회사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회의에서는 2018년도 사업 시행결과 및 결산보고와 2019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김경연 통영시보건소 감염병 관리팀장이 경상남도간호사회장상, 강선희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 대한간호협회장상, 채연미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가정전문간호사가 경상남도지사상을 수상하였다.

대한간호협회 제86회 정기 대의원총회 참석



대한간호협회 제86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시스템 혁신 주도' 주제로 2월 19일

(화)~20일(수) 롯데호텔 제주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되어 본회 박형숙 회장을 비롯하여 대의원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호계 현안 이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18년도 사업수행 결과 및 결산보고가 있었고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정관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또한 2014년에 도입한 회원복지 포인트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회비를 78,000원에서 58,000원으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지난 한 해 각 분야에서 간호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간호사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회원들에 대한 포상이 있었다.

간호역량 개발사업(본회 및 분회) 실시



간호사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체험 교육제공을 통하여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커피강좌'를 개설하여 상·하반기 총 48명이 참가하였으며, 총 4개 분회(통영시, 거창군, 창녕군, 함안군)에 지원금 200만 원씩을 지원하여 뜨거운 호응 속에 웰다잉과 호스피스의 이해, 한지공예, SNPE 바른 자세 척추운동, 노인놀이심리상담사 2급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였다.

제48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제28회 학술발표회 개최

제48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으로 5월 24일(금)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복합교육센터 1층 대강당에서 김성진 교육위원의 사회로 회원 1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박형숙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경상대학교병원의 'COPD 환자 맞춤형 흡입기 교육 프로그램 적용 효과' 등 2편, 국



립부곡병원 1편,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편, 창원경상대학교병원 2편, 총 6편의 논문과 마산의료원에서 사례연구 1편을 발표하였으며 전원 참가상을 수상했다.

지난 해에 이어 회원들에게 논문작성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한 특강은 구미옥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의 '근거기반 간호'를 주제로 진행되었고, 논문 발표에 이어 교육위원들의 강평이 있었으며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부학장으로 재직 중인 최소영 교육위원장의 총평을 끝으로 폐회하였다.

'간호사 워크숍 - 임원 및 회원' 개최



분회와 분회와의 간호계의 최신정보 및 문제공유를 통하여 이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5월 18일(토) 합천 황가람농업농촌활력센터에서 임원 및 회원 46명이 참석하여 '간호사 워크숍 - 임원 및 회원'을 개최하였다. 분회 지원금 지급 및 분회의 '어르신 행복잔치' 개최 논의와 올해 실시 예정인 사업 관련 논의에 이어 박형숙 회장의 '한국간호의 역사와 간호정책 현황'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고 '도라지양갱 만들기' 체험활동과 합천 황매산과 영상테마파크를 관람하였다. 주관 분회인 합천

군간호사회(회장 이미경)에서 장소 선정 및 기념품(따프리카)을 지원하였다.

2019 간호정책 아카데미 & 간호교육 질 향상 (간호대학·병원간호부) 세미나 개최



2019 간호정책 아카데미와 함께 간호교육 질 향상 세미나(간호대학·병원 간호부)를 7월 18일(목) 그랜드메리큐어 앰배서더 창원 빌라드룸에서 간호대학 교수 및 병원 간호부서장 등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먼저 개회사(박형숙 회장)에서 "지난 6월 27일(목)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ICN총회에서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을 위한 서명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하며 회원들의 지속적인 동참과 간호·조산사법 제정의 성공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간호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간호정책 아카데미를 같이 개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대한간호협회의 지원으로 진행된 간호정책 아카데미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현황'을 주제로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정책자문위원의 특강으로 이루어졌으며, 사회구조와 질병양상의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기본법인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간호계의 역사에 대한 재조명으로 참석자들에게 사명 의식과 자공심을 일깨워 주었다. 이어 분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소영) 주최로 개최된 간호교육 질 향상 세미나(간호대학·병원 간호부)는 도내 16개의 간호대학과 병원 간호부에서 참석하여 '효과적인 임상실습 운영 방안'에 대하여 그룹토의 및 발표로 진행하였으며, 대학에서는 '관찰위주의 임상실습으로 인한 실습만족도 저하 및 임상수행

능력의 부족 등으로 실습의 허용범위에 대한 가이드 라인 마련의 필요성'과 임상에서는 '신규간호사들의 인성 교육과 직업에 대한 정체성 확립, 체력향상 등이 요구된다'는 토론내용을 발표하였다.

제17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경남대회 개최



경상남도는 경상남도간호사회와 공동으로 『제17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경남대회』를 8월 21일(수) 그랜드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였으며, 개회식에는 박형숙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정순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의 축사, 장재혁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 대회는 대한간호협회, 모아메디칼상사, NH농협 상남지점 후원으로 마련되었으며, 모유수유에 대한 중요성과 우수성을 강조하고 자연스럽게 엄마젖을 먹이기 위한 여건 마련의 분위기 조성, 유아기 건강과 건강한 인격 형성 및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통하여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에도 기여하고자 함이다.

지난 7월 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개별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대회일 기준 생후 4~6개월(2019년 1월 21일~2019년 4월 21일) 된 건강한 모유수유아 81명(4개월 30명, 5개월 21명, 6개월 30명)이 참가하였다. 의사 검진, 발달검사, 모아애착 및 건강지수 등 심사를 거쳐 시상하였다. 시상은 경상남도지사상(4개월 정유록), 경상남도간호사회장상(5개월 전이서), 대한간호협회장상(6개월 이하온)을 각 1명에게 상장과 상금 50만원씩을 수여하고, 아름상 9명에게 상장과 상금 25만원씩, 보람상·행복상 등 66명에게는 상장 및 부상을, 그리고 4명에

게는 협찬사로부터 받은 모유수유 튜튼상·모유수유 사랑상을 수여하였다. 심사집계하는 동안에는 감성레크레이션 및 50명에게 행운상과 엄마사랑모유사랑 퀴즈 상으로 상품을 지급하고 아기와 가족들이 함께하여 즐거움을 나누었으며, 모유수유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코너를 운영하여 육아 및 모유수유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으며, 올해 처음으로 운영한 모유수유 홍보부스에는 리플렛을 비치하여 배포하였고, 그 외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부스를 만들어 더욱 풍성한 대회가 되었다.

2019년도 간호행정자 세미나 (순회 보수교육) 실시



간호관리자 및 예비관리자들에게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간호행정자 세미나가 9월 27일(금) 그랜드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그랜드볼룸에서 총 130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올해 대한간호협회에서 개발한 순회보수교육 중 '안전한 간호현장을 위한 법과 윤리' 주제로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본회에서 실시하였다.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의 '의료법과 간호정책', 강선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의 '간호실무와 법의 기초'와 '간호대상자의 안전과 인권보호', 이경희 이로법무법인 변호사의 '간호과실과 판례'와 '간호사의 안전과 인권보호' 순서로 강의가 이어졌으며, 간호사와 간호대상자 모두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간호현장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간호와 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개념 설명과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하여 교육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차기 교육주제로 의료법과 간호정책 관련 내용, 노동법, 상담기법 등 다양한 주제를 건의하였다.

2019년도 간호사 Cheer Up 개최



본회 회원등록 5년 이하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현장체험수기를 공모하여 동행하고 싶은 동료, 선·후배 1명과 함께 참가하는 행사로서 신규간호사들이 선배간호사와 동행하여 상호존중과 상호이해를 위한 힐링워크숍을 통해 전문직업인으로서 의식제고와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안정된 병원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올해는 10월 10일(목), (사)마리안느와 마가렛 소록도 나눔연수원에서 총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본회 박형숙 회장의 한국간호의 역사와 보건의료정책 관련 설명회와 김연준 (사)마리안느와 마가렛 이사장의 '그래도 사람에게서 희망찾기' 주제의 특강에 이어 마리안느와 마가렛 기념관과 소록도 내 박물관 견학 등 현장 체험을 통해 동기 간과 선·후배가 서로 이해하고 힐링할 수 있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2019년 요양병원 간호부 워크숍 개최

요양병원 간호부 간의 유대강화 및 정보교환을 위하여 10월 19일(목) 그랜드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빌라드룸에서 개최한 요양병원 간호부 워크숍은 경남도내 요양병원의 간호부에서 총 52명이 참석하였다. 간호업무상 요구도가 높은 주제로 특강과 사례발표로 진행하였는데 먼저 '세대간 공감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김권수 휴먼경영전략연구소 대표의 특강과 송미영 좋은연인요양병원 간호부장과 공혜정 마산우리요양병원 안전전담간호



사의 '요양병원 2주기 인증 관련 자체평가'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이 있었으며 추후 교육프로그램으로 3주기 인증관련 교육, 힐링 프로그램 등을 건의하였다.

2019년 간호정책 선포식 참가



10월 30일(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주영 국회의원의 장을 비롯한 각 정당대표와 원내대표, 여야 국회의원 60명과 그 외 유관단체장, 재외한인간호사들이 참석, 전국의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과 간호가족 등 50,000여 명이 참가하여 성대하게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2020년은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인류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는데 공헌한 간호사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아 격려하기 위하여 '세계간호사의 해'로 지정하게 되어 간호사로서의 자긍심과 승고한 소명의식을 되새기고자 개혁과 변화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였으며, '간호법 제정으로 전근대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5대 중점과제를 선포하였으며 식전행사 및 시상식, 간호정책 선포식, 문화행사로 진행되었고 한

국간호역사 전시, 독립운동가 간호사 34인 전시, 널싱 나우(Nursing Now) 캠페인과 소록도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서명운동도 진행하였다. 경남에서도 회원 및 간호대학생 등 3,000명이 대거 참가하였는데 이 중 경남 도내 16개 간호대학교에서 1,80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미래 간호사로서 감동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었다.

보수교육 지정기관 실무자 간담회 개최



본회 및 보수교육 실시 4개 분회와 경상남도 내 8개 기관의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12월 6일(금) 창원시 소재 디미방에서 보수교육 지정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박형숙 회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대한간호협회와 본회의 현황 및 주요 사업보고에 이어 2019년도 보수교육 실시 관련 평가에서는 전달보수교육 강사교육 일정 조율의 필요성, 타기관 신청자의 교육 만족도, 필수교육이 포함된 보수교육 요청 등의 건의사항이 있었고 보수교육 운영 시 지정착석제 운영, 교육내용에 맞는 사례 및 동영상 추가, 만족도를 고려한 강사 선정으로 신청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그 외 2020년 강사교육 프로그램 및 일정, 온·오프라인 개발 프로그램 안에 대한 보고와 기관별 개선사항으로는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자의 증가에 따른 오프라인 교육실시의 어려움과 대한간호협회 KNECC의 프로그램 개발 및 내용 변화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이웃돕기사업 실시

경남도내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선정하여 성금을



전달하는 이웃돕기사업으로 진주시, 거제시, 거창군간호사회에서 추천한 5명을 선정하였다. 올해는 농협 창원상남지점(김정구 지점장)에서 후원한 100만 원과 함께 총 530만 원을 전달하였다. 2월 18일(수)은 본회 박형숙 회장을 비롯하여 김정구 농협 상남지점장과 조수정 거제시간호사회 회장 및 임원들과 같이 대상자들을 방문하여 성금을 전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본회 산하 간호인력취업교육
경남센터 사업보고**



본회에서 운영 중인 간호인력취업교육 경남센터(박형숙 운영위원장)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경남도내 유휴간호사들을 발굴, 교육 및 취업연계까지 지원하여 목표수 대비 교육이수자는 119%, 취업자 수는 110%의 성과를 내었다. 그 외 간호관리지역량교육, 실습지도자양성교육, 간호대학 졸업예정자교육, 신규간호사 이직방지교육, 교육전담간호사교육, 프리셉터교육, 상시실기교육을 실시하였고, 조직문화개선교육은 간호관리자, 일반간호사, 간호보조인력으로 업무를 세분화하여 간호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긍정적인 조직문화조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하였다.

2019년 분회 주요소식

| 창립순으로 |

창원시간호사회 | 2008. 06. 24.

**역량강화를 위한 자신을 돌아보는
다도(茶道)예절 체험**



창원시간호사회(회장 이갑옥)는 9월 28일(토) 밀양 보문사에서 창원시간호사회 이사 및 간호부서장 30여 명이 다도예절 체험을 가졌다. 주지 스님은 차를 마시는 방법과 차향의 종류, 차의 9가지 덕목 등 가정에서 녹차를 마실 때는 몰랐을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 주시며, “차를 혼자 마시면 신선과 같고, 둘이 마시면 나누는 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숲길을 걸으며 자연이 주는 피톤치드를 호흡하고, 자연이 내어주는 다채로운 풍경 속에서 걷는 즐거움을 만끽하였다.

창원시간호사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개최



창원시간호사회(회장 이갑옥)는 10월 5일(토)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하는 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각 병원에

서 920점의 많은 물품을 기증해 주었고, 짧은 시간 동안 구매자수는 240명으로 매출금액 4,352,850원을 달성하였다. 매출금액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였으며, 창원시간호사회 회원 19명과 간호학생 8명이 봉사자로 참여하여 매장 물품 정리 및 판매 등의 봉사활동으로 나눔 문화행사에 동참하였다.

진주시간호사회 | 2008. 07. 02.

진주시간호사회 이웃사랑 실천



진주시간호사회(회장 고은선)는 2월 19일 지역사회 훈훈한 이웃사랑 실천으로 진주시에 200만 원을 기탁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진주시간호사회 임시총회 및 특강 개최



진주시간호사회(회장 고은선)는 5월 14일 회장 재임선거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간호사 출신의 이경희 변호사로부터 '간호사와 밥'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이날 7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였고 진주시 신임회장으로 경상대학교병원의 고은선 회장이 선출되었다

진주시간호사회 보수교육 실시



진주시 간호사회(회장 고은선)는 10월 22일~23일 전달 교육인 '노인환자 응급간호'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노인 인구가 늘어가는 현세에 맞는 교육으로 열강&열공 중인 모습이다.

간호정책 선포식 참가



진주시간호사회(회장 고은선)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2020 세계간호사의 해 선정 및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 기념축제'에 참가하였다. 참석한 473명의 회원은 간호법 통과를 염원하는 진심 어린 모습을 보여주었고, 혼잡함 속에서도 사고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치게 되었다.

거제시간호사회 | 2008. 10. 10.

거제시간호사회 정기총회, 조수정 회장 선출

거제시간호사회(회장 조수정)는 4월 24일 여성단체협의회 대강당에서 제8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었다. 회원 1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회장에 조수정(맑은샘



병원 간호부장)이 선출되었고, 신임회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였으며 "간호정책 아카데미 및 회원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보수교육, 장학사업, 간호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등을 실시하며 간호사처우개선을 위해 협회와 소통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하였다.

제11회 거제시간호사회 간호봉사 실시



(사)거제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조정의) 주최, 거제시 간호사회(회장 조수정) 주관으로 2019년 10월 26일 거제시 장곡면 구영마을 회관에서 10명의 이사와 2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제11회 거제시간호사회 간호봉사를 실시하였다.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법에 대해 교육을 하였고, 건강 상담, 혈압과 혈당 측정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간호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2019년도 거제시간호사회 송년의 밤

거제시간호사회(회장 조수정)는 2019년 11월 28일 거제 옥포 애드미럴호텔에서 간호사회 송년회를 가졌다.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 133명 참석하여 창립해부터 2019년까지 정리된 활동영상을 감상하며, '컬러로 힐링' 하자의 특강도 듣고 경남간호사회 박형숙 회장의 축사, 우리의 영원인 간호법 제정이 통과되길 바라면서 회원들과 한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통영시간호사회 | 2008. 10. 10.

간호사 역량 프로그램 실시



통영시간호사회(회장 성명숙)는 간호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4월 20일~21일 웰다잉 자격과정을 실시하였으며, 회원 1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5월 3일은 회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예체험을 실시하였으며, 이 행사를 통하여 회원들 간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자신이 좋아하는 특별하고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들었다.

간호(의료)봉사 실시

통영시간호사회(회장 성명숙)는 해경, 통영서울병원 후원으로 추도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나눔 간호(의료)봉사를 실시하였다. 성명숙 회장을 비롯한 회원 7명은



병원에서 준비해온 영양제를 어른신들께 일일이 정성껏 나눠드렸다. 봉사를 통해 어촌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제간호사의 날 행사 기념 환경정화 활동 실시



통영시간호사회(회장 성명숙)는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행사로 쾌적하고 깨끗한 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이순신 공원 일대에서 환경정화 운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 간호사회 회원 35명이 참석하였다.

통영시간호사회 임원진 워크숍 실시



통영시간호사회(회장 성명숙)는 6월 1일~2일(1박2일)에 하동군 소재 방아섬에서 임원진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성명숙 회장 및 9명의 임원들은 회원들의 권익향상과 간호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창녕군간호사회 | 2008. 11. 12.

남지 유채축제에서 '건강관리 홍보' 부스운영



창녕군간호사회(회장 김완숙)는 4월 12일 남지 유채축제에 참가하여 지역민의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건강증진(심혈관 질환 예방 및 금연관리 등)을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창녕군간호사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상담 및 자가 관리를 교육·홍보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만듦에 앞장서고자 한다.

간호역량 개발 사업 '바른 자세 척추운동' 진행



창녕군간호사회(회장 김완숙)는 5월부터 2개월동안 2019년도 간호역량 개발사업 일환으로 '바른자세 척추운동'을 진행하였다. 국민 건강증진의 선도자적 역할을

하는 간호사의 건강습관 형성과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창녕군 분회 2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김완숙 회장은 간호역량개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건강한 자기관리와 창녕군간호사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민과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지역사회 나눔행사 전개



창녕군간호사회(회장 김완숙)는 추석을 맞아 창녕군 소재 요양병원에 성금 및 물품을 전달하였고, 12월에는 창녕군청을 방문하여 청소년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창녕군간호사회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사람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하동군간호사회 | 2008. 11. 12.

하동군간호사회 단합대회 개최



하동군간호사회(회장 임인숙)는 11월 30일 청학동 삼성궁 돌레길을 돌고 성남식당에서 식사와 교제를 나누고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참석한 회원 18명은 근무의 스트레스를 풀고 힐링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하동간호사 전체회원 67명에게 1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하여 지급하였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하동군간호사회(회장 임인숙)는 12월 17일 하동군 청암면 삼신봉로 97-11에 거주하고 있는 다동이 가정을 방문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였다. 10월에 4번째 아이를 출산하고 산모돌보미 서비스 비용이 없어서 88년생 첫째가 열악한 환경에서 산모와 아이를 돌보고 있어 도움을 요청하였다. 2019년 불우이웃돕기 대상자로 다자녀 가정을 선정하여 굴 1박스와 현금 50만원을 전달하였다.

고성군간호사회 | 2008. 11. 20.

정기총회 개최



고성군간호사회(회장 이윤희)는 3월 27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33명의 회원이 참석, 간호사간 친목도모와 간호사회 당면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성금 기탁

고성군간호사회(회장 이윤희)는 지난 4월 강원도 고성 대형 산불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4월 18일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성금을 기탁하였다.

김해시간호사회 | 2009. 04. 07.

천사 데이(10.04.) 단체 영화관람



김해시간호사회(회장 권영채)는 10월 4일 김해 내동 휴엔락 4층 CGV에서 김해시간호사회 주최 '천사 데이'를 맞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간호사들을 위한 '장사리' 영화 관람을 통하여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권영채 회장을 비롯하여 관내 부서장, 이사, 170명의 간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어르신 행복잔치 열어



김해시간호사회(회장 권영채)는 11월 5일 김해 불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경상남도 지원, 경상남도간호사회 주최, 김해시간호사회 주관, 지역사회 건강위원회 협조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어르신 행복잔치'

를 개최하였다. 2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건강 체험 부스운영을 통한 무료 혈압과 혈당 측정, 건강상담 및 행복잔치 축하 공연을 통하여 건강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양산시간호사회 | 2009. 05. 28.

양산 유채꽃 향연 참가, 봉사활동 실시



양산시간호사회(회장 장우연)는 '2019년도 양산 유채꽃 향연'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행사장 인근 환경미화를 실시하였다. 양산시간호사회는 2009년 창립 이후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의료용품 지원, 장학금 지급 등의 간호봉사 사업을 꾸준히 해왔으며, 향후 지역사회 간호 봉사 활동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 우수학생 장학금 전달



양산시간호사회(회장 장우연)는 지난 10월 15일 양산시 소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우수 학생 3명에게 각각 30만 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양산시간호사회는 학교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장지

수, 부산대학교 이윤건, 영산대학교 송민지 학생은 각 학교 관계자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양산시에는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영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보건의료대학 간호학과,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등 3개 대학에서 간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초청강연회 개최



양산시간호사회(회장 장우연)는 11월 12일 2019년 양산시간호사회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신용철 양산시립 박물관 관장이 연자로 나서 '양산의 역사와 문화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장우연 회장은 "회원들의 역량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초청강연회 강의로는 경남간호사회에서 지원했다.

사천시간호사회 | 2009. 12. 05.

나이팅게일 봉사단 활동 실시



사천시간호사회(회장 김복선)는 나이팅게일의 송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4월 13일 축동면 반룡보건진료소, 10월 12일 가천보건진료소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125명의 회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혈압, 당뇨측정을 통한 건강상담, 웃음 및 스트레스 관리, 레크리에이션, 노래교실(우리민요 및 전통가요, 트로트), 시낭송 등 문화교실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되고 외로운 지역주민들과 문화를 공유하며, 건강상담 등을 통해 행복감과 자존감을 높여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2019년도 초청강연회 및 송년회 개최



사천시간호사회(회장 김복선)는 12월 13일 회원들에게 본회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자긍심 고취와 역량증진의 일환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화합과 단합을 위한 초청강연회 및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건강요양원 하영숙 원장이 바쁜 일정 속에서 살고 있는 회원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의미 있는 강연을 해주셨고, 우리들만의 잔치 송년회는 병원별 장기자랑, 임원진 라인댄스 등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거창군간호사회 | 2010. 06. 18.

거창군간호사회 단합대회 개최

거창군간호사회(회장 백진영)는 4월 20일 경남에서 선도하는 관광사업인 웰리스(Wellness) 관광투어로 수송대 일원에서 단합대회를 가졌다. 회원 42명이 참여하여 하늘호수 화장품 체험, 명상, 트래킹을 통해 진정한 힐링이 무엇인지 체험하고 건강에 대해 다시금 느끼게 한 시간이었다.



회원 역량개발 사업 실시



거창군간호사회(회장 백진영)는 6월 10일~8월 29일까지 회원들의 역량개발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9명의 회원이 참여하였다.

경남간호사회에서 지원하는 불우이웃돕기



거창군간호사회(회장 백진영)는 12월 19일 경남간호사회가 후원하는 이웃돕기 지원사업인 '행복한 동행'으로 경남도립거창대학 재학생에게 106만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였다.

남해군간호사회 | 2013. 12. 20.

남해군간호사회 회원 단합대회 실시



남해군간호사회(회장 정영은)는 4월 20일 25명의 회원들과 함께 남해군의 정취를 느끼고, 산과 밭으로 거미줄처럼 이어진 남해 바래길 7코스 고사리밭길을 함께 걸으면서, 아름다운 해안과 갯벌의 바다를 내려다보며 회원 간 친목도모와 현장에서 어려움과 경험을 서로 나누면서 웃고 즐기는 단합대회를 가졌다.

불우이웃돕기 나눔 행사 실시



남해군간호사회(회장 정영은)는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여 주변에 소외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그리운 두가정을 방문하여 간호사회의 체운을 나눠드리고 왔다.

합천군간호사회 | 2015. 05. 26.

합천군간호사회 안마봉사 릴레이

합천군간호사회(회장 이미경)는 10월 28일에서 10월 30일까지 3일간 합천군 보건소에서 30여 명의 간호사



들이 참여하여 안마봉사 및 손마사지 릴레이를 펼쳤다.

밀양시간호사회 | 2016. 03. 19.

외국인 근로자 무료 건강 상담 실시



밀양시간호사회(회장 이명순)는 4월 7일 '제12회 밀양시 외국인 근로자 축제'를 맞이하여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의료분과와 함께 전문의, 약사, 간호사 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무료 건강 상담을 실시했다. 밀양시 문화체육관광 앞에서 평소 언어소통 및 의료비 부담으로 병원을 쉽게 찾지 못하는 약 2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방약품 등의 건강 꾸러미를 전달하였다.

어르신 행복잔치 열어

밀양시간호사회(회장 이명순)는 7월 13일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어르신 450여 명을 모시고 의료봉사와 함께 행복잔치를 열었다. 1부 기념식에서는 김봉태 부시장과 이병희 도의원의 축사에 이어 박형숙 경남



간호사회 회장의 격려사와 함께 '활기찬 노년의 삶'이란 주제로 건강강좌가 이어졌고, 2부 행사는 웃음치료 및 밀양시연예인협회의 축하공연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위해 지지하고 응원하는 자리가 됐다.

초청강연회 개최



밀양시간호사회(회장 이명순)는 9월 28일 밀양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회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원규 강사를 초청하여 '웰다잉과 행복한 삶'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함안군간호사회 | 2017. 03. 27.

함안군간호사회 정기총회 개최

함안군간호사회(회장 홍은주)는 5월 22일 함안문화예술회관 연회장에서 회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홍은주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형숙 경상남도 간호사회 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조근제 함안군수, 박용순 함안군의의회 의장, 엄용수 국회의원, 장중하 경상남도의회 의원의 축사가 있었으며,



연임된 홍은주 회장은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발전과 간호사의 전문성, 열정이 더하여져 향후 군민이 행복하고 보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역량개발사업 실버통합교육 전문가 양성교육 이수



함안군간호사회(회장 홍은주)는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원역량개발사업의 일환으로 9월 21일, 9월 28일 양일간 20시간에 걸쳐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실버통합교육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간호사의 전문지식과 자질함양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삶, 치매 예방활동과 노인의 인지기능 유지 등을 도와 줄 수 있는 전문교육으로 실버놀이 이론과 실전교육, 노인건강운동이론, 치매예방 전통놀이, 민요체조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접목은 물론 언제든지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노인인 지상담사, 노인실버체조 자격증 등을 취득하였다.



편집자 레터



간호법 제정 등으로 뜨거웠던 지난해, 올해는 완성하는 해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경남간호』를 완성합니다. <이종임 위원장>

어느 한 지면이라도 소홀함 없이 행간을 채우고자 했지만 늘 그렇듯 이번(통권 25호)에도 아쉬움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위해 보여 주었던 우리 경남 회원 여러분들의 단합된 모습에 새삼 경자년의 역동감이 전해져 옵니다. <김영란 위원>

간호법 제정에 보다 다가설 수 있는 의미 있는 『경남간호』(통권 25호)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 시간에도 업무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모든 간호사들을 위한 '간호법 제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경남간호 화이팅! <김은희 위원>

『경남간호』 통권 25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다양한 공간에서 간호사의 소임을 다 하시고 현장의 소리와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회원님들께 축복을 기원합니다. <박옥명 위원>

한 해 동안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원들의 다양하고 진솔한 삶이 녹아있는 2019년 『경남간호』 통권 25호의 완성은 저에게 마지막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도 간호현장에서 쉼 새 없이 분주한 회원들의 헛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2020년 세계 간호사의 해를 맞이하여 2019년에는 간호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재조명하면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발판이 되어 올해도 회원님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힘차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한 해 동안 한 땀 한 올의 정성을 다해 내어놓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길 바라며,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황진희 위원>

경상남도간호사회 29대 임원					
직위	성명	근무처 및 직책	직위	성명	근무처 및 직책
회장	박형숙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명예교수	이사	이종임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간호부장
제1부회장	조순연	경상대학교병원 대외협력팀장		전진선	마산우리요양병원 간호부장
제2부회장	남정자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장		조상희	진주고려병원 간호국장
이사	권영채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은희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김미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특수간호팀장	최소영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박옥명	창원파티마병원 간호과장	최정숙	삼성창원병원 플로우매니저	
	손계순	거창 양지보건진료소 진료소장	김희자	거제대우병원 간호부장	
	이삼순	거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성명숙	통영서울병원 간호이사	
	이옥경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간호본부장	사무처장	양은주	경상남도간호사회 사무국



독립운동가 간호사·간호학생 34인을 기억합니다

일제 강점기 34인의 간호사와 간호학생은 병실에서, 길거리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몸을 던져 싸웠습니다. 이러한 숭고한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 받아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간호사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